

상급과정 안내서

목차

1. 인간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상급학년 발달단계

2. 상급교과과정
 - 1) 9학년 발달단계와 수업의 주요점
 - 2) 10학년 발달단계와 수업의 주요점
 - 3) 11학년 발달단계와 수업의 주요점
 - 4) 12학년 발달단계와 수업의 주요점

3. 상급학년 실습
 - 1) 9학년 농업실습
 - 2) 10학년 측량실습
 - 3) 11학년 생태실습
 - 4) 12학년 사회실습

4. 학교생활 규정

인간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상급학년 발달단계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든 학생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관심을 자신 안으로부터 일깨워야 한다. 모든 교육의 방식은 자기 주변의 세상에, 그 세상의 법칙에, 그 과정의 원인과 결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에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등 모든 것들이 자신 안에서 지속적으로 울림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자연, 우주, 세상만물, 인간의 영혼, 역사의 수수께끼에 관한 질문이 청소년들의 젊은 영혼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청소년들의 내면에서 발달하는 것은 고통과 유사한 것이다. 육체에서 아스트랄체(감성체)가 해방되었다는 것은 부드러운 고통이 계속되는 경험이다. 만일 자기에게 몰두하는 힘의 방향을 외부세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은 점점 더 자신 안으로 갇히게 될 것이다. 고통은 개인적인 감정 속에서 더 커지고 그것에 집착함에 따라 증가한다. 고통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치료는 자신의 감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본심 즉, 세상과 연결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아스트랄체가 자유로워지면 학생들은 이제 그 힘을 세상의 수수께끼를 풀어내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힘이 세상의 수수께끼에 대한 강렬한 관심을 일깨우는데 쓰이지 못하면 도리어 그들을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본능적 충동인 폭력성과 성욕에 대한 심취이다.

유감스럽게도 기존의 교육은 청소년의 폭력성과 성욕을 앞서 말한 잘못된 변화의 이차적인 결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사춘기의 인간 안에 있는 본성적인 요소로 보아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는다면 이 시기에 폭력성과 성욕에 관해 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의 징후인 것이다. 예술과 과학은 폭력성과 성욕에 관한 질문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청소년들이 본능적 충동에 심취하지 않고 넓은 세상에 대한 진실한 관심을 깨울 수 있도록 애써야한다.

청소년들은 상상력을 요구한다. 청소년들을 사로잡는 온갖 외부 이미지들과의 힘

겨루기가 벽차고 어려울수록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해주어야 한다. 그 대안은 바로 '내적 상상력'이다. 처음 마음에 떠올린 뒤에도 그 여운이 오래도록 남는 자기 내면의 이미지만이 외부에서 주는 이미지를 이길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물질세계관에 갇히지 않으면서도, 물질세계에 튼튼히 자리 잡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관찰훈련은 '세상에 뿌리 내리기'를 도와주고, 상상력 훈련은 '내적인 유연성'을 키워준다. 본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키워주려는 자질은 '자신감'이다. 이것은 세상이 진행되어가는 법칙과 자신이 그 법칙을 이해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말한다.

청소년기는 또한 판단력이 성장하는 시기이다. 손상된 판단력은 염세적이면서 지식적인 방식에서 온다. 18세 이후에 세상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갖는 의심은 청소년들의 영혼을 파괴하며 회의주의를 얹어줄 뿐이다. 회의주의는 인생전반기를 지내고 있는 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청소년들에게 허약한 염세주의를 가져오지 않게 하는 것이 과목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한탄하는 어른들, 바뀌지 않는 침울한 어른들, 헤아릴 수 없이 낮은 자아감을 지니고 있는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이미지를 주고 혹은 끔찍한 개혁을 선동한다. 어른은 활기 있게 그들에게 다가가야하며 그 활기는 청소년들에게 확신을 준다.

그러므로 청소년과 어른이 아주 사려 깊은 방식으로 도덕적인 관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도덕성은 아주 넓은 의미로, 예를 들어 교사가 교사 자신의 영혼 안에서 자신의 과제에 대해 매우 깊은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이런 도덕적인 태도는 그 자체로 보여야 하며 주관성과 개인성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어른의 수많은 모습이 청소년에게로 간다. 어른이 깊이 있는 도덕적인 태도로 다가갈 때 청소년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놓여진다.

상급 교과과정

9학년 발달단계:

감정의 극단을 오가다- 균형과 대조

대부분이 이미 사춘기에 도달했고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힘 앞에서 9학년 학생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자신 안에 이제껏 몰랐던 풍요로운 내면세계가 있음을 깨닫기는 했지만 아직 스스로 주도하지는 못하고 그 넘치는 힘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형편이다. 14-16세 아이들과 살아 본 사람들은 롤러코스터가 휘젓고 다니는 놀이동산 한 가운데에 있는 기분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이 나이 아이들은 극단주의자이다. 정신없이 들떠서 뛰어다니다가 순식간에 의기소침해지고 방금까지 명하게 있다가 몇 초도 안 돼서 언제 그랬냐는 듯 눈을 초롱초롱 빛낸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도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그 간극이 어찌나 깊고 크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여학생들은 상급과정에 들어올 무렵 자기들이 남학생들보다 훨씬 철들고 성숙한 상태라고 아주 당연한 듯이 말한다. 그리고 사실 그 말이 맞다. 여학생들은 9학년에 올라올 때 이미 혼자만의 내면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에도 편안해진 것에 비해, 남학생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낯설고 당황스러워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상태다.

슈타이너는 이 시기 성별의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를 정신적인 관점에서 설명한다. 여자아이들은 싹트기 시작한 자아의 힘이 감정영역(아스트랄)쪽으로 뻗어간다. 자아의 힘이 감정 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감정의 깊이와 그 힘에 대한 자각이 깨어난다. 이제껏 몰랐던 열정과 힘, 통찰력이 샘솟는 것을 느끼면서 여학생들은 건방지다 싶을 정도로 대담해진다. 이에 비해 남자아이들이 지닌 자아의 힘은 감정보다 신체 쪽으로 향한다고 슈타이너는 말한다. 이 관점은 여학생들이 왜 그렇게 관계를 중시하고 그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를 즐기는지, 자신만의 비밀 일기장에 신들린 듯 글을 쓰는지, 빈민가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구제하는 멋진 자기 모습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와 결혼하는 공상에 그렇게 빠져드는지, 반면에 남학생들은 어째서 그 나이가 돼서도 여전히 운동장에서 몸을 부딪치며 치고받고 노는 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해준다.

9학년 남학생들은 같은 반 여학생들과 비교할 때 참으로 어설피고 미숙해 보인다. 감정의 강렬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체격에서조차 여학생들에게 밀리는 경우

가 많다. 여학생들은 인생에 맞설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데 비해 남학생들은 좀 더 힘을 키우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것 같다.

미국의 스페이셜 다이내믹 (Spacial Dynamics : 보트머 체조에서 파생한 일종의 운동프로그램)의 창시자인 자이멘 맥밀란(Jaimen McMillan)은 이 시기 남자아이들에 대해, '널빤지로 사방에 담을 치고 그 위에 가시철조망을 꼭대기까지 칭칭 감아 올린 공사장 같은 상태. 이마 한 복판에 [공사 중] 표지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고 설명한 적이 있다. 다행이 이 간극은 11학년 무렵에는 좁아진다. 걸핏하면 "우리가 너희보다 어른스럽다"고 말하던 한 여학생이 어느 날 또 그 말을 하자 성깔 있는 남학생이 이렇게 대꾸했다. "그래, 몇 달이나 몇 년 동안은 빠르겠지. 하지만 11학년쯤 되면 너희는 성장이 끝나 평생 그 상태로 살겠지만 우리 계속 자란다구!" 이 시기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극단적 감정 사이에서 널을 뛰는 건 둘 다 마찬가지다. 9학년 수업은 바로 이런 상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관찰연습은 9학년들의 요동치고 있는 감정을 다스리고 안목을 예리하게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상력 키우기가 있다. 사춘기 때 추상적 사고능력이 전면에 떠오르고 나면 이제부터는 그것만 갖고 수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슈타이너는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를 통해 도덕성을 가르칠 수 없는 것처럼, "청소년들에게 지적인 방식으로 지성을 훈련시킬 수 없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이르러 논리의 세계에 발을 내딛으면, 상을 떠올리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심상을 주어 세상에 대한 상과 그 의미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 안에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9학년들은 반면 자기 관점을 강하게 붙들고 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 것이 중요하고, '내 것이야' 라는 강한 인식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미흡하다. 갑자기 이상적인 집착이 생겨, 이것은 옳고, 저것은 옳지 않아, 모든 것은 흑이고 백이야, 그것은 자유이고 저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즉 합리적인 것이 새로이 등장하는 과정인데, 이때 학생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손을 내밀어 이들을 도와줄 때이기도 하다. 그러나 너무 세게 손을 잡아당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즉 학생들 스스로 잘 설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여야 한다. 학생들은 이 시기에 희망, 개별성, 이상들이 더욱 강해지기 시작하고, 각자가 갖는 이상들을 어른의 입장에서는 우습게보지 않아야 하고, 우습게 만들어서도 안 되며, 존중해야 한다.

또한 내면이 걱정적인 시기이며, 아이들은 외면과 내면이 다르게 되며, 매순간 비평을 일삼고, 무엇이든 시도해 보려고 한다. 교사는 보이지 않는 9학년들의 내면으로부터 생겨나는 질문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매 순간 아이들은 내부적으로 천사와 악마 사이에서 갈등하며 싸우게 된다. 무엇이든 시도하기 위해 밖으로 들어나는 말썽들은 그저 이 시기의 일상일 뿐이다. 그리고 이때의 아이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내면과 정반대일 수도 있다.

9학년 과제

- 사고의 구조화: 지성의 발전, 단순 논리, 인과적 결론 (8학년의 감성에서 이해영역의 판단력 발전)
- 전체를 조망하기: 전체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인 탐색
- 세상에 대한 관심 일깨우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요소들을 모아서 문화의 창조자로서, 세계의 경영자로서의 인간을 경험하기
- 사고, 이상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이상을 경험하도록 모범적인 전기 다루기

각 에포크의 주요점

국어(문학)

문학 수업에서는 두 가지 중요테마가 동시에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유머이다. 유머는 사물 간의 거리, 사춘기 학생들이 갖는 거리감을 채워준다. 그 외에도 유머가 갖는, 빛이 날카로운 비판과 청소년 자신에 대한 비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공해준다. 웃음은 인간 개별성의 활동에 있어서 언뜻 보기에 해낼 수 없는 일에 대한 영혼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웃음의 반대편에 있는 영혼의 상태, 즉 동정, 동감 그리고 눈물이 언어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영혼의 질을 미학적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9학년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긴장>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의 현상을 경험하게 한다.

두 번째 에포크에서는 학생들이 고전에서의 개별 인물과 그들의 사고에 몰두하고 검토한다. 예를 들어 문학작품에서의 우정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작품 속의 질문은 학급 내에서의 동료집단의 변화, 청소년들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상응한다. 문법과 문장론의 영역을 통해 정확한 규칙과 구조, 다양한 서정문의 표현방식과 형식을 파악하고 연습한다. 자신의 주변과 거리를 두게 되는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모국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리를 둔다. 이것은 청소년들만의 은어로 발전시키기도 하는데, 동시에 일상에서 언어의 파괴가 일어나기도 하므로 이에 대비해 영향력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수학

대수에서는 실수체계의 확립과 조합을 중심으로 경우의 수를 다룬다. 연분수를 통하여 유리수를 넘어서는 무리수를 알아보고, 작도 가능한 무리수를 확인하고 실수 체계를 완성한다. 이는 2차방정식으로의 여정을 위한 준비물이 될 것이다. 또한 조합과 순열로 대비되는 경우의 수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논리 사고를 연습한다. 여러 가지 분류 나누기를 하고, '중복 가능한 경우의 수' 등 대비되는 경우의 연습을 한다. 이를 통하여 직접 경험한 것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연습, 발전적으로는 일반화하는 연습까지도 시도할 수 있다. 9학년 기하는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시작점이다. 삼각형을 보다 분석적으로 알아보며 도형의 합동을 명확히 한다. 단순한 면적 계산을 해볼 수 있다. 또한 삼각형의 중요 중심(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을 작도하고 논리적인 사고 및 설명을 위한 연습을 한다. 담임과정 기하에서 배웠던 기초 기하를 토대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증명의 방법은 사고에서 가설을 세우고,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을 보장한다. 이 방법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매우 성장한다. 정다면체(플라톤 입체)를 다루는데, 우선 내적인 과정을 통해 입체의 상을 그려내고 그것을 작도하고 공간에 조감도와 병렬투영법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물리

9학년의 물리 수업에서는 관계 속에서 인간의 탐구행동을 주요 주제로 증기기관, 기관차, 전동기, 전화 등 18, 19세기의 기계의 구조에 집중한다. 증기기관차와 전화는 인간관계에서 연결과 소통이라는 비슷한 내용적 질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그들의 사고와 집중을 통해 어떻게 발명으로 이룰 수 있었는가를 학생들이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기술은 <인간의 사고가 세계화가 된 것>으로 파악하게 한다. 그리고 이 사고의 과정을 과학자의 전기문 등을 통해 따뜻하고 열정적인 상으로 주도록 한다. 이때 도덕적인 부담과 오늘날의 문화 비판론을 덧붙일 이유는 없다.

생물/인간학

9학년 시기의 학생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지며 동시에 내적인 불확실성과 방향의 상실로 예민하고 상처받기 쉽다. 9학년 생물 에포크는 7학년 때부터 이어온 인간학이 중심 주제이다. 9학년 인간학은 세계 속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내도록 다양한 감각기관을 다룬다. 감각은 외부 세계를 인간 내부에서 인식하여 세계와 나를 연결해 준다. 9학년 수업은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명료하고 분명한 사실과 현상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직접 경험하도록 하고, 그 경험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화학

화학에서는 촛불로부터 시작되어 다시 촛불로 되돌아오는 큰 순환(탄소의 순환)을 다룬다. 그 과정 속에서 물질의 연소와 호흡, 광합성,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 탄수화물의 탄화, 당-알코올-카복실산-에스테르에 이르는 유기적 발효, 증류를 통한 물질의 분류, 증발과 휘발 등 물질 자체가 지니는 특성을 실험을 통해 관찰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사고의 구조화, 단순 논리, 인과적 결론 : 8학년의 감성에서 이해영역의 판단력으로 발전하며, 전체를 조망하며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 분석적인 과정을 다룬다.

지질학

상급과정에서 지구 전체를 다루며 9학년에서는 지질학을 다룬다. 지질학을 통해 지형의 다양한 형태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지형의 형성 과정을 살핌으로써 자연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판단력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구의 단단함과 규칙성을 통해 학생들의 안정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9학년 지질학 수업에서는 암석과 빙하(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 풍화), 빙하에 의한 지역(U자곡, 피오르, 호른), 지구온난화, 유수(강, 하천)에 의한 지역(V자곡, 우각호, 선상지, 삼각주), 화산 활동(화성암, 화산의 종류, 분출 형태, 분출물), 화산 활동으로 인한 이점과 피해, 판의 경계(지진활동, 경계 지형, 변환 단층), 지각 운동(대륙이동설, 판구조론, 지구 내부)에 대해 다룬다.

역사

역사에서는 근대 ~ 현대까지의 역사상을 다룬다. 특히 인류 의식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징후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상을 살펴본다. 마녀사냥을 시작으로 인권선언 그리고 제국주의로 이어지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한국사에서는 그러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내적인 변화의 동인을 살펴보고, 그것이 인류사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다양한 사건들을 탐구한다. 특히 역사적 인물들이 선택했던 다양한 고민과 선택들,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저항과 투쟁의 여정을 생동감 있게 펼쳐낸다.

미술사

9학년의 예술사로서 미술사를 다룬다. 공간예술로서의 미술, 조소가 주제이다. 학생들은 이 분야의 대작들을 경탄과 기쁨으로 감상한다. 우선 감성영역의 섬세함과 심화를 위한 <보는-공부>를 관찰을 통해 연습한다. 작품에 나타난 형태와 구성에

관하여 우선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질문을 세우고, 암시하는 정도로 얘기를 나눈다. 미학적 평가는 작품들을 체험하고 대작들을 연습한 후에 형성될 수 있다. 관찰 연습이 된 후에 새로운 질문으로 작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이 집트인들에게 <아름다움>이란? 그리스인들은 미에 대해 어떻게 경험했는가? 미의 이상은 무엇이었나? 르네상스에서는 미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성장 발전했나? 그림 작품의 발전과정에서 인류의 발전과정을 읽어낼 수 있는가?

동양 미술사의 발전을 전 세계의 시간적 흐름으로 함께 배치하여 학생들이 동, 서양의 미술작품을 골고루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작품 선정에 대하여 교사의 준비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각 과목의 주요점

오이리트미

주관과 객관의 대립과 조화, 격동적인 신체와 영혼, 정신의 조화를 위한 연습이 이루어지고, 이 연습이 각 학생과 학급의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

- 언어, 음악, 공간 움직임의 동력과 대조를 배운다.
- 공간에서의 여섯 방향과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의식을 동작을 통해 확인한다.
- 담임과정에서 익혔던 언어, 음악 오이리트미의 요소를 사교 영역에서 재해석한다.
- 개별/그룹 활동에서 스스로 형태를 만들어낸다.

음악

바로크 9학년 학생들은 감정과 태도의 이중성을 경험하며 동기부여를 얻기 원한다. 대위법을 통해 하나의 동기로 다양하고 자유로운 모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가고, 프렐류드와 푸가, 호모포니와 폴리포니의 대조를 바흐의 곡으로 경험한다. 하나의 곡 안에서 solo와 tutti의 역할, 조화를 배우며 무리 안에서 개별성을 나타내는 9학년 학생들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다.

- 바흐와 헨델의 비교 (전기 조사와 발표)
- 푸가, 조곡, 칸타타, 오라토리오 등 다양한 바로크 곡들의 차이점 묘사하기, 비교하기
- 움직임과 모방: 바흐의 판타지와 토카타
- 호모포니와 폴리포니의 차이점: 바흐 평균율곡집
- 음계, 5도 순환, 음정, 화성과 전위에 대한 기초
- 즉흥연주와 짧은 폴리포니적 곡 작곡

미술

새로운 이해능력으로 상상의 힘을 새롭게 키우고 감성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한다. 인간의 영혼에 자연의 분위기, 하루, 한 해의 리듬이 스며든다. 명도 차에 의하여 입체감을 나타내는 음영법(키아로스쿠로) 안에서 밝음과 어둠의 대조와 균형, 공간성을 이루며 또한 빛과 그림자의 경험은 실제적인 측면을 넘어 구체적인 경험이 된다. 조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원리로 형태를 창조해나가는 조형의 간단한 기본 연습을 한다.

- 흑백소묘: 밝음과 어둠 속에서 기본 형태, 직선 및 곡선 표면의 요소를 연구(구,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원뿔, 원통 등), 정확한 관찰 인식 연습 (뒤러의 흑백 예술 작품)
- 빛금그리기
- 조소: 구의 변형, 뫼비우스 띠

수공업

디자인에 대한 기본 개념과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배움을 하게 된다. 나무에서 금속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로 정확한 작업순서와 함께 나무와 금속을 모두 경험하며 자신만의 손칼을 제작한다.

가정에서 필요한 가구들을 실측을 하고 수직과 수평의 개념을 이용한 짜맞춤가구를 제작 한다.

- 손칼 만들기: 목공예
- 짜맞춤가구: 목공예

수공예

의지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손이 자유로워지는 시기이므로 손의 힘을 정확하고 의미 있게 쓸 수 있도록 한다. 손끝에 느낌을 발달, 개발시키고 참을성과 인내를 배우도록 이끌어 의지력을 키우는 작업을 한다. 혼돈의 시기를 같이 정돈해 줄 수 있는 작품으로 질서, 규칙, 바로 세움, 견고함과 유연함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바구니 짜기를 한다.

- 바구니 짜기: 안과 밖, 중심을 살피는 과정을 경험하고, 전체가 일부로 일부에서 전체로 가는 리듬이 존재하며 이 리듬은 내적고요를 형성한다. 반복된 리듬 안에서 재료는 내 손 안에서 숙련의 힘을 경험한다.

체육

양극성과 함께, 확고하고 구체적인 지식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중력의 무거움과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벼움, 작용과 반작용, 지

속과 스피드, 힘과 유연성, 직선과 나선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왕성하지만 균형 잡힌 훈련과 힘과 유연성을 발달시킨다.

- 체조: 앞과 뒤로 공중제비, 마루운동, 평행봉, 핸드스프링
- 운동: 구기스포츠와 라켓스포츠, 투포환, 원반던지기, 투창던지기 활쏘기
- 보트머 : 앞의 공간으로 뛰어들거나 도약 중력 안으로 뛰어 내리는 것, 이것은 현재/미래로 의식적인 걸음의 돌파구를 찾게 하는 것이다. 하나는 두 교차의 리듬으로 정면 걷기를 하게 된다.

정보학

정보 기기(컴퓨터)의 기본 개념에 대해 파악하고, 정보 기기들이 다루는 data(아나로그와 디지털의 관계)와 data의 논리적 연산에 대해 근원적으로(전자의 이동 레벨에서) 이해한다.

정보 기기의 기본 개념을 통해 오늘날의 IT 기술이 특정한 역사적 흐름을 가지게 된 배경을 확인하고, 인간이 느끼고 표현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정보 기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되는 과정을 통해, 정보 기기가 동작되는 최소 단위를 이해하며, 더불어 이 최소 단위가 수학적인 계산 결과를 만들어 내는 논리적인 흐름을 확인하여 IT 기술의 근본적인 동작 체계를 이해한다.

동 이해를 통해, IT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모호함을 극복함과 동시에, 디지털 언어가 가지는 장점과 한계를 스스로 인지하여, 기술을 주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초적인 소양을 습득한다.

- 컴퓨터의 역사
- 컴퓨터의 기본 구조(분해)
- Data의 변환(아나로그와 디지털의 이해 및 그 차이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 수립)
- Data의 연산(논리회로)
- 기본 프로그램 사용법(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영어

상급 학생들에게는 거대한 이상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열정과 세상에 대한 흥미를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교사의 능력과 유머감각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교사는 재치와 우주에 대한 관심과 학생들의 영혼 안에 머물러 있는 질문을 알아차리는 공감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담임과정에서 처럼 그룹 암송과 낭송은 지속되며 점점 문장 단위 이상으로 확장한 개별 말하기로 나아가야 한다.

세 번째 7주기의 첫 번째 단계에 있는 9학년은 감성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그들의 일상은 소용돌이친다. 따라서 언어 수업에서는 판단력을 발달시키고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학생들은 불규칙성과 소용돌이와 당연한 일에 대한 거부감 사이에서 판단하고 규칙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영어수업의 목표

위대한 이상을 가진 인물에 대한 열정과 세계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기: 전기

- 열정과 유머감각에 불씨를 지피기, 공감능력 발달
- 문법: 문법을 배우면서 보호적 환경(부모, 교사)이 사라지고, 스스로 언어를 형성하기, 개별화된 단어와 개별화된 문법의 결합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줌.

영어수업의 내용들

- 읽기자료의 주요한 주제: 역사물, 전기, 수필
- 양극성을 다루기: 지리학적이고 역사적인 지향의 전기텍스트, 풍자문
- 어휘작업: 일상, 관용표현, 어휘리스트보다는 문맥 안에서 나오는 어휘
Martin Luther King Jr., Abraham Lincoln or Napoleon
- 문법: 모든 문법 반복, 빈틈을 메우고 주제를 확장

중국어

9학년 시기의 아이들은 외부세계로 눈을 돌려 실질적인 물질세계를 관찰하고 경험하게 된다. 과학 수업에서 자세히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경험과 문학 작품속의 희극과 비극, 미술의 흑과 백 등 양극의 원소들을 배우게 되듯 언어 수업에서도 양극의 감정과 생명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와 다른 민족, 성별, 종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성을 키우고 정신과 육체의 건강이 균형적인 발전과 성숙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한다.

학습의 기본 목표는 간단한 문장이라도 스스로 말하고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8년 과정에서 익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확장되어진 텍스트를 공부하게 된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내적 동기와 실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비교적 쉽고 간단한 텍스트로 시작을 한다.

학습 내용으로는 일상회화 및 상황별 회화 연습을 통해 지속적인 말하기 실력 향상을 꾀하고 어휘와 문법 수업을 통해 중국어의 어순 및 언어 구조를 이해한다. 또한 9학년의 정서와 발달 단계에 맞는 단편 산문이나 수필을 읽고 낭독을 통한 말하기 연습 강화와 중국인의 문장 표현 양식을 인식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매일 현대시나 당시(唐詩) 암송을 통해 언어에서 느낄 수 있는 중국어의 운율과 중

국인의 해학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회화나 문학작품 속 중국 역사, 문화, 풍속 습관 등의 이야기를 통해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하고 또 다른 세계관을 바라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나간다.

- 고시(古詩) : <静夜思>, <望庐山瀑布>, <春晓>, <登鹤雀楼>, <问刘十九>, <绝句> 등
- 회화: 일상회화, 상황별 회화
- 독해: 단편 수필, 산문, 전기 <花木兰>, <落花生>, <差不多先生传> 등
- 문법: 조동사, 동사중첩, 비교문, 정도보어, 방향보어, 전치사 용법, 把字句
- 연극: 물란<花木兰>

10학년 발달단계:

논리와 법칙- 앞에서 깨달음으로

10학년이 되면서 아이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달라진다는 말이 과장된 호들갑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들과 매일 함께 하는 교사들은 9학년에서 10학년으로 올라가는 방학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상급에서 일 년을 보내면서, 아니면 나이를 먹으며 철이 좀 들어 그럴 수도 있다. 어쨌든 새 학기 시작과 함께 10학년이 되어 학교로 돌아온 아이들의 안정감 있는 눈빛에선 작년의 어설픈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진창에 빠져 어쩔 줄 모르고 허우적대는 아이가 아니라, 안전한 창구를 떠나 넓은 바다로 떠날 준비를 마친 멋진 그리스 함선의 당당한 선원으로 봐주어야 한다. 자신에 대해 훨씬 편안해지고, 개념적으로도 명료해졌으며, 자신의 인식 능력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자신만만하다.

하지만 10학년을 여러 번 경험한 교사들은 이 나이에 자주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도 알고 있다. 아이들의 자신감이 커지다 못해 간이 부어버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유야 어쨌든 많은 아이들이 갈 데까지 가본다. 시기는 저마다 다르지만 술, 담배, 마약, 섹스, 도둑질, 거짓말 등 온갖 말썽에 발을 들이는, 다시 말해 세상이 내미는 달콤한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모든 아이가 다 그런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6,7학년 때 벌써 사고를 쳐서 부모를 진땀 빼게 하는 아이도 있고 한참 뒤에 그러는 아이, 끝까지 안 그러는 아이 등 제각각이다. 요점은 10학년이 ‘그럴 때’ 라는 것이다. 10학년은 또한 진지하게 자신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인류 근원에 대한 질문과도 이어진다. 10학년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 질문에 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10학년들은 지적 능력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아직 미숙한 자아의 힘에 도취되곤 한다. 아이들의 이런 차이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깨어 있는 발도르프 교사라면 그런 내면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할 것이다. 10학년이 되면서 새로운 힘에 눈뜨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하나둘 등장한다. 그들은 더 넓게 볼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써보고 싶어 안달한다. 교사는 신이 나서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해석해서 교훈을 주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수많은 성서 속의 이미지와 주제들이 스스로 말하도록 내버려두는 ‘현상학적’ 접근

은 교사의 어떤 설교보다 훨씬 풍성한 수확을 낳는다. 아이들은 자신의 삶이 외부의 강제에서 내면의 자유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감지한다. 더욱 자신다워지는 과정에서 11,12학년 즈음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내면적 충돌을 어떻게 극복해야할지는 아직 잘 모르긴 해도 말이다.

10학년이 되면 각 학생의 개별성이 활동에서 더 강하게 드러난다. 개별의 능동성이 강화되고, 자신의 발견이 이루어져서 사고 영역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사고의 명확함은 판단력증가로 이어져 차츰 학생들이 호감과 반감에 머무는 단계에서 벗어나도록 돕게 된다. 그 힘은 각 활동에서 분석적인 작업을 통해 스스로 법칙성을 찾아내게 된다. 신체와 영혼의 사춘기-7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최고점에 섰다고 볼 수 있는 이 시기에 학생들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래서 물리적 인간으로서의 유기체와 유기체의 기능을 영혼, 정신적인 인간과 결합하고자 한다. 즉 스스로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실제로 알고자 하는 시기이다.

10학년 과제

- 사고의 객관성과 명확성 (이해의 판단력, 개념의 판단력 형성)
- 세계의 법칙성에 대한 분석적 이해 (사고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
- 세상은 진실하다! : 삶에 대한 안정감
- 행동에 있어서의 정확함, 실제 삶을 배우기(실습)
- 자신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발전시키기

각 에포크의 주요점

문학

10학년에서는 소설, 신화를 통해 자아와 세계를 배운다. 소설 속 인물의 갈등에 동참하며 인물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 나간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질문(이것이 10학년의 질문이다)을 작품 속에서 찾아내고, 개별적 질문들을 문학작품을 통해 객관화시킨다. 또한 신화 수업에서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무의식적인 갈망들도 확인한다. 인간의 욕망이 발현되는 양상을 통해 사회와 욕망의 상호작용을 체험한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신화 속에서 찾아가며, 이러한 과정들에서 자신이 현재, 존재하는 의미를 찾아 나간다.

여러 현대시를 감상함으로써 감성을 풍요롭게 한다. 또한 내면의 목소리를 시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수학

앞이 깨달음이 되기 위해 다양한 삶의 영역에 수학의 지식이 응용되도록 힘쓴다. 9학년에 완성한 실수체계를 확장하여 작도 불가능한 무리수를 다룬다. 문자와 식의 연습으로 지수와 그 역으로 로그를 도입한다. 로그는 수학사적 발전과정을 강조하고 경험적인 깨달음을 얻게 할 것이다. 분석기하학을 기초로 삼각함수, 지수함수의 계산영역을 다룬다. 10학년의 <측량실습>을 위한 측량의 원리(삼각함수의 응용)를 구체적으로 연습한다.

10학년 기하에서는 2차원 평면, 3차원 공간의 변형과정을 사고과정에서 연습하게 된다. 도형의 주제는 직선과 원부터 시작하여 투사 기하학 기초까지 확장한다. 학생들은 <과정>을 생각하도록 배움이 일어나야 한다. 즉 인지과정을 통해 형성된 상을 사고과정을 통해 객관화하고 변형하는 사고의 열림성이 키워져야 한다. 작도에 있어서도 도형의 형태를 공간에 상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응용영역까지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직선적 변화를 탐구한 것을 토대로 상상력을 통한 곡선적 변화를 그려내는 것까지 포함한다.

물리

담임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이루어졌던 과학실험들이 상급과정에서도 여전히 경험 위주와 <현상>을 정확히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그러나 사고영역으로 더 확장하여 구조화되고 최종적으로는 법칙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찾아가는 세계의 법칙들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개별의 <판단력 형성>의 과정을 탄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물리수업에 있어, 물리적인 현상들을 학생 스스로 묘사할 수 있어야 하고, 수업에서 배운 물리적 원리들을 일상의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운동의 법칙, 힘의 측정, 뉴턴의 법칙, 에너지, 케플러법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생물/인간학

10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영혼적인 힘이 작용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 의식을 갖고 성찰할 능력이 있다. 9학년 때보다 많은 것을 서로 비교하고, 연결할 수 있다. 수업 내용에서 일반적인 규칙을 점진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고, 획득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10학년 인간학 수업의 중심 주제는 인간의 내부 기관이다. 순환계(심장, 허파), 소화계(위, 장, 간, 이자, 지라), 배설계(콩팥) 등을 다룬다. 9학년 때 다루었던 기관들에 비해 이때 다루어지는 내부 기관은 생리학적으로 증대된 자율성이 형태학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내부의 기관을 형태학적-해부학적 방식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생리학적, 정신-신체 의학적인 관찰로 이어진다. 또한 각 기관에 해당하는 질

병을 함께 서술한다. 신체 내부의 기관과 그 기능은 영혼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이를 연구함으로써 영혼적인 것을 의식하게 되고, 그와 함께 영적인 것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화학

7학년 때 다루었던 산과 염기를 주제로 산과 염기가 만나 물과 염을 만드는 중화 반응을 이해하고 다양한 산과 염기의 조합으로 생성되는 염의 특징을 다룬다. 아울러 금속과 금속염의 화학적 성질과 과포화 상태의 재결정을 통해 구조적 특징을 다룬다.

화학에서는 <해명>과 <방향설정>을 중요한 모티브로 삼아 명확한 생각으로 세계를 바라본다. 동일한 현상을 통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사고를 형성하기 위한 수업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전체를 파악하게 된다.

기상학

10학년은 지구의 환경, 대기권으로 들어가며 9학년의 지질학보다 더 복잡해진다. 학생들은 이미 역사 에포크를 통해, 옛날에는 각 지역의 삶의 조건이 그 주변의 기후와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7학년이 ‘나는 세상을 알아간다’의 측면이라면, 10학년에는 ‘이제는 내가 삶의 결정체로써 깨닫게 된다’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여전히 10학년에서도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론으로 진행된다. 대기권, 전 세계 기후권, 기상학적인 요소들을 배우면서, 생명의 환경과 인간의 환경의 내적관계를 찾도록 한다. 학생들은 지구가 항상 살아 있는 유기체라는 것, 고도로 섬세한 리듬과 순환체계로서 생명활동에 대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역사

10학년 역사에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인류의 기원부터 시작한다. 초기 인류의 등장부터 후기 구석기 시대 펼쳐지는 문화적 특징들을 다양한 유물을 통해 이해한다. 그리고 영적 세계와 연결되는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인류사에 구현되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집단 규모의 확장 과정, 농업혁명을 심도 있게 다루어 인류 문명의 형성과정을 탐구한다. 이어서 신화를 통해 인류 의식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루며, 그것이 갖는 의미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축의 시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인류 의식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문학사

예술사로서 10학년에서는 문학사를 다룬다. 시, 소설 등 언어로 표현된 작품 안에서 예술성을 찾아 나가는 작업이다. 문학의 역사를 통해 인간 의식의 변화과정을 살핀다. 시대의 주류를 이루는 인간의 가치관, 언어의 소리, 표현 방법 등을 신화, 서사시, 서정시, 희곡, 소설에서 탐구한다. 여러 작품을 감상하고 내면화하여 느낀 감성을 예술작품으로 형상화한다.

각 과목의 주요점

오이리트미

인간과 세계의 대립성을 표현하고자 하고 내면을 깊게 찾아가는 10학년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내부 공간과 외부(중심과 주변의 관계)에 대한 움직임의 다양성을 탐구한다. 학생들은 탐구의 내용을 동작의 흐름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

인간에 대한 본질적 이해의 요구를 위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질문을 담은 시, 다양한 나라의 발라드, 변화가 있는 서사시, 서정시, 규칙적 운율이 있는 라임 형태의 시를 배우고, 동작에 있어 시와 서술적 표현, 배경을 표현하는 차이를 연습한다.

- 7학년 때 배웠던 '영혼의 다양한 상태를 동작으로 표현'하기를 좀 더 깊게 배운다.
- 사고, 감정, 의지의 세 영역의 영혼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 개별성이 드러나는 자유로운 형태의 움직임을 시도한다.

음악

고전 의식적인 사고력이 발달하는 10학년에는 고전시대 음악의 형식적 언어를 배운다. 소나타와 심포니의 발전, 콘체르토 형식 등을 살피며 작곡가에 의해 분명하게 조형된 음악의 구조와 인간이 닮아 있음을 알아나간다. 하나의 동기로 모방을 이루었던 바로크 시대의 음악과 달리 두 개의 테마가 곡을 이끌어나가는 고전음악의 특징을 배우고 더불어 화성학의 기초를 다진다.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연주를 준비하고 기획하며 프로그램 노트를 만드는 일에 참여 할 수 있다.

-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비교 (전기 조사와 발표)
- 동기와 주제의 발전: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기악곡
- 소나타, 심포니, 콘체르토, 오페라 등: 시간적, 공간적으로써의 악장 작품 연주와 감상, 묘사, 분석
- 화성학 기초

- 소나타 형식: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등
- 화성적곡과 대위법곡 작곡 시도하기
- cadenza 만들어 보기

미술

인간과 주변 세상에 대한 관심을 예술행위와 연결시켜 인간의 영혼에 나타나는 양가감정의 상태를 예술적으로 표현해나간다. 회화에서 온기와 냉기, 능동성과 수동성, 특징적인 배열, 특징이 없는 배열, 보색관계 등 색채의 다양한 상호관계에 집중하고, 색채의 상상력을 발달시키고 색채의 세계에 새로운 흥미를 갖도록 한다. 흑백소묘에서 의식과 의지의 측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구조의 표면과 선으로 흑백의 표현 가능성을 넓혀간다. 조소의 기본 요소를 배우고 표면 형태를 관찰하고 다루는 연습을 한다.

- 회화
- 흑백소묘, 빗금그리기
- 조소: 부드럽고, 날카로운, 평탄한 표면, 외부 및 내부의 아치형 평면 구성, 자유로운 표면 등

수공업

언어적 사고를 통한 배움과 내면 작업을 통해 자신의 내적 공간을 경험을 하게 된다. 금속공예수업에서는 동판의 성질, 오목과 볼록 면의 전환과 연결을 경험한다.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작업 순서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곡선과 공간이 만들어 내는 형태를 온전히 느끼며 만들어 간다.

내용: 촛대(금속공예), 그릇(금속공예)

수공예

실용적인 작업을 통해, 실재의 삶속으로 들어가 전반적인 과정을 알고, 경험하여, 사고의 명확성과 법칙성, 정확함을 요구하는 시기이다. 물레와 베틀을 이용한 직물 짜기를 하며, 씨실과 날실이 엮어가는 과정에서 법칙성과 정확함을 경험하며, 인류의 문명 발달과 인간의 운명적인 의미를 체험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각자의 개성을 살려 일상생활에 필요한 작품을 만들면서, 삶에 실질적 능력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세상 밖으로 나아간다.

- 베틀작업/직조: 여러가지 섬유, 직물에 대해 공부하고, 천연재료로 방적(실 뽑기), 직조(실 엮기), 염색하기
- 도구사용: 물레, 베틀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방적, 방직작업을 한다.

체육

10학년 중점은 균형 잡기, 그리고 이해와 적용의 과정에 맞춰진다. 아이들은 주제에 대한 이해와 습득된 지식을 이용하는 부분을 실행할 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은 자세, 변형, 정확성, 의식적인 움직임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더욱 조화로운 움직임을 갖도록 해야 하며, 또한 서로서로 더욱 강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박력 있고 힘차면서도 균형 잡혀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달시키며 힘과 유연성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간다. 기술능력에 중점을 두어서 스포츠 기술과 테크닉을 더욱 발달 시켜 나간다.

- 체조: 전 학년의 연속해서 동작의 흐름과 올바른 운동 안에서 리듬 찾기를 강조하고 움직임은 점점 통합적으로 가게 된다.
- 운동: 운동이 연속성과 사회성이 점점 강조가 된다. 구기스포츠와 라켓스포츠, 투포환, 원반던지기, 투창던지기 활쏘기
- 보트머: 원반운동, 돌레를 걷는 것(수평) 이런 운동은 수평면을 의식하고 가운데를 잡을 수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정보학

변형되고 연산된 data를 '연결'하는 관점으로서의 인터넷을 정의하며, 더불어 실제 생활에서 미디어(인터넷)를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를 스스로 설정, 주체적인 미디어 사용을 연습해 나간다.

센서와 무선 통신에 대한 학습하며, 이를 통해 data 모든 사이클 - Data의 생성(센서,입력), data의 가공(디지털라이징), data의 연산(논리회로, 프로그래밍), data의 연결(인터넷, 무선통신) - 에 대한 개념 정립을 진행하며, 동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0세기 이후 최근까지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추정하는 연습을 한다.

- data의 연결(인터넷, 이메일)
- 인터넷에 대한 명과 암(토론)
- 자신의 생각을 디지털 제작 도구로 표현하는 연습(ppt를 활용한 미니프로젝트)
- data의 생성(디지털 센싱 기술) 및 data의 무선 연결(무선통신 기술) 개요
- 다양한 신기술(AI, 가상/증강현실, 3D 프린터 등)에 대한 작동 방식 추정(토론)

영어

사춘기 내면의 변형 과정은 최고조를 거쳤고, 극적인 성질은 힘을 잃어간다. 여전히 자신의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들이지 않으려는 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입을 달아버리는 모습과 연관되어 있다. 언어는 그것을 돕고 소용돌이치는 내면의 삶으로 질서를 가져오는 법을 배운다. 외국어는 그 “표현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데

특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10학년은 외국어 연극 (영어 혹은 중국어)를 통하여 그동안 쌓아온 외국어를 자신의 말과 연기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표현해 내는 특별한 시기이기도 하다. 문법 구조의 이해는 조금씩 언어의 다양성과 힘이 경험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학생들의 인식을 넘어서는 현상을 이해하고 개별적 존재로써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영어 수업의 목표

질서를 찾아간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 외국어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데 특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 문법 구조는 전체적으로 배우고, 그것이 언어의 다양성과 힘을 경험하는데 기초로 이용된다.

영어 수업에서 가능한 내용

- 교사 자신의 열정과 헌신에 기초한 읽기자료
 - 원작 문학작품, 로맨틱, 낭만주의 시인의 시와 전기
 - 읽기 전 새로운 어휘 작업, 행간파악, 시점을 바꾸어 보는 과제, 텍스트 부분별 요약, 일기쓰기와 등장인물들 간의 일치성
- 어휘작업: 동의어, 뉘앙스, 시에서 은유와 비유
- 낭송: 낭만주의시인(W.B. Yeats, W. Blank, W. Wordsworth, P.B.Shelley)의 시, 유머러스한 텍스트와 발표연습

중국어

10학년 학생들은 각각 다른 현상들을 비교하고 대조함으로써 양자 간의 관계를 유추하는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시기이다. 역사적인 내용을 담은 서사시, 규칙적인 운율을 지닌 고시(古詩), 희극을 공부하면서 각기 다른 형태의 문장이나 장르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형식을 달리하면서 배워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10학년은 사춘기를 거치고 내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존재, 주체와 객체의 다양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에서 기복이 뚜렷한 시기이다. 스스로에 대한 자기 비판보다는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커지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인다. 학생 자신의 사고, 느낌, 의지를 세상과의 관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의 형식을 빌어 외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해소할 수 있도록, 교사는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수업방식을 이끌어 내어 즐겁게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목표는 언어 수업의 기본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강화시키고 스스로 자신의 느낌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 내용은 잔말놀이, 만담

(相声), 수수께끼, 관용어, 고사성어 등을 통해 다양한 어휘와 운율 및 표현을 익혀 나가고, 고대시, 현대시, 산문, 소설, 인물전기, 신화, 설화, 연극 작품 등의 강독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문화와 사람을 이해하고 구어체 표현과 문어체 표현을 배운다. 문법 학습은 중국어의 언어 구조와 어휘 특성 및 언어 비교를 통해 언어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감상문, 독후감, 일기, 편지 등 작문연습을 통해 스스로의 생각을 외국어로 표현해 볼 수 있고 언어를 통해 중국인의 사유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10학년의 정서에 맞는 작품을 선별해 읽고 느끼고 분석적인 작업을 거쳐 발표와 토론 수업을 통해 잘 듣고 말하기를 연습하고 내용을 요약하여 말하는 연습을 통해 내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힘을 기른다.

- 고시(古詩): <秋蒲歌>, <水调歌头>, <初秋>, <九月九日忆山东兄弟>, <月下独酌>, <秋风词> 등
- 회화&어휘: 관용어, 고사성어 등
- 독해: 중국 4대 미인 이야기, <青凤>, <梁山伯与祝英台>
- 중국 개관: 중국 지리, 역사, 문화 이해하기
- 어법: 결과보어, 가능보어, 접속사, 피동문, 존현문
- 발표&토론
- 연극: <梁山伯与祝英台>

10학년 ~ 11학년 외국어 연극

상급학년 외국어 연극은 유창한 외국어 구사라는 실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문화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중요한 활동이다. 학생들은 외국어 연극을 준비하며, 외국어로 대사를 외우고,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인물을 분석하며, 해당 언어와 역사, 문화를 몸과 혼으로 체득하게 된다.

희곡 작품은 각 언어권의 문화와 역사가 대사와 연극으로 잘 드러날 수 있는 대본을 주로 사용한다. 만일,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고르게 된다면, 교사와 아이들이 쉬운 구어체로 각색을 할 수도 있다. 작품 공연 시간은 학생들이 집중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도록 1시간을 넘지 않는다. 외국어 연극은 8학년과 12학년의 졸업 연극에 비해 연극적인 전문성을 띠지 않아도 좋지만, 연극적 요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연극교사와 팀티칭으로 진행될 수 있다.

연극 준비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자주성이 8학년 때보다 더욱 요구된다. 8학년 연극 때에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상이나 분장 등에 도움을 주었다면, 상급에서는 외적인 부분까지 아이들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된다.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올라가게 되어도, 의상을 반쪽밖에 만들지 못한 상태로 입고 올라가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있기에 이는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다.

11학년 발달단계:

자아를 향한 여정

10학년 때는 그리도 자신만만하던 아이들이,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으스스대고 잘난 척하고 큰 소리 뽕뽕 치던 아이들이 왜 11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빠져들까?

지금껏 구김살 없이 밝고 성격 좋고 산악자전거 타기를 즐기던 아이가 갑자기 눈을 피하고 무슨 말을 해도 대꾸도 잘 안하고 혼자 있으려고만 하는 것 등이 완전히 딴사람 같다. 속은 아주 괜찮은 아이라도 겉모습은 막 자다 일어난 듯, 부스스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 형클어진 겉모습 한 꺼풀 밑에는 아주 분명하고 똑 부러지는 청소년이 숨어 있다. 어떻게 지내는지 듣고 싶다고 하면, 그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라 막막해 한다. 그 나이 아이들이 지금 자신의 상태나 생각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 물고기가 자신과 물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힘들 듯, 아이들에게 숨 쉬는 공기 그 자체를, 자신들을 감싼 영혼의 상태를 조망할 시야를 갖길 기대하는 건 지나친 욕심이다.

아이들은 두려워하고, 뿌연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전 지금 제 안에 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신은 자기 안에서 헤매고 있다고 느낀다. 자기 내면에 지금껏 몰랐던 많은 방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자신을 움직이는 힘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있다. 발도르프 교육 강사인 더글라스 거윈은 이 시기 청소년들의 상태를 이런 말로 설명한 적이 있다. 16,17세 아이가 넓은 집안을 돌아다닌다고 해보자. 아이는 익숙한 방들을 천천히 지나면서 창밖으로 어려서부터 보아오던 거리 풍경을 내다본다. 그러다가 문 하나를 발견한다. 열어보니 지금껏 있는지도 몰랐던 별채가 나온다. 낮설고 어두침침한 복도를 따라 들어갈수록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갑자기 발밑에서 바닥이 우지끈 무너진다. 정신을 차려보니 지하 감옥 같이 생긴 캄캄한 지하실이다. 사방엔 온통 기괴한 그림자에다 낮설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린다. 많은 11학년이 자신의 '영혼풍경'을 이와 비슷하게 느낀다. 어둡고 기분 나쁜 방으로의 갑작스런 추락, 어떤 무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꾸 자기들을 손짓하여 부르는 방.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치는 동안 아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라도 힘들어 한다. 여러 증상 중에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을 받은 아이들도 많다. 16,17세 아

이들은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을 순 있지만 온전히 자신의 책임은 아닌 주변상황에 꼼짝없이 갇혀 있다고 느낀다. 그들은 내면에서 일종의 죽음과 재생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느낀다. 이것은 최근 아스트랄의 힘이 해방되면서 깨어나기 시작한 의식에 대한 묘사다. 아직은 미숙한 의식이지만 그로 인해 아이들은 찬란했던 어린 시절이 스러져가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 깨어나고 있음을 예리하게 자각한다. 11학년들은 아무도 자신의 참모습을 알아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느낀다. 그럼에도 온 신경이 자신에게 쏠려있다. 변형과 관계성이 중심주제이다. 변형과 관계성이 결국 깨달음, 입문의 이야기다.

이에 앞서 아이들은 교과과정을 통해 문학작품을 탐구하고 과학현상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작은 입문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입문의 길은 첫 번째 단계에서 익숙하고 편안한 모든 것, 즉 가족과 친구, 관습과 낱아빠진 신념에 작별을 고해야 한다. 이는 불확실성의 세계로 들어가야 함을 의미한다. 두렵기까지 한 이런 모호한 상태에 어떻게든 일단 적응하고 나면, 이제 탐색의 길에 선 여행자는 초심자에게 요구되는 용기와 결단력, 유연함과 지략을 시험하기 위한 일련의 시련을 만난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입문과정의 많은 일이 그러하듯, 가장 힘들었던 시련이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수스만에 따르면 시련을 극복하는데 성공한 입문자는 고난을 통해 훨씬 성숙한 새사람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다. 입문으로 인한 성과가 그 개인으로만 국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고향으로 돌아온 입문자는 그 열매를 남아 있던 이들과 함께 나누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풍요로워지고 확장되기 마련이다. 우리 시대는 실패를 대단히 불명예스럽게 여긴다. 아무도 실패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실패를 맛보지 않으려 기를 쓴다.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연약한 우리의 자아의식과 자존감에 금이 가기 때문이다. 실패는 의심을 낳는다. 하지만 그 의심에서 진정한 질문이 자라난다면(모든 질문에는 탐색이 내포되어 있다.), 실패는 가장 큰 성장을 향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11학년들은 의심과 불안이 삶에서 진실의 빛을 찾아 헤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온 몸으로 경험한다. 또한 사고와 느낌, 의지의 힘을 삶 속에서 통합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 알고는 있다. 하지만 막상 행동할 때는 사고와 느낌, 또는 사고와 의지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냉정한, 때론 잔인하기까지 한 비판을 날리는 아이의 사고에는 따스한 온기의 느낌이 필요하다. 심심하면 칼로 책상을 낙서하는 버릇을 가지 아이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손 가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즉, 의지 속에 깨어있는 의식을 불어넣어야 한다. 손톱만

큼이라도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물불 안 가리고 펄펄 뛰며 화를 내는 아이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나이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곤 한다. 사실 인생 전체를 통틀어 자기도취 또는 자기 몰두의 절정기라 할 수 있다. 물론 자기 고유의 내면세계가 꽃피기 시작하면서 그 깊이와 차원을 넓혀가는 시기임을 생각하면 그래야 마땅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강박적일 정도로 자기에게만 매달리다가 세상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고립이 우울증(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공공의 책임을 지는 사고방식을 통해 11학년들은 성숙한 12학년으로 성장해 간다. 그러나 동시에 사춘기의 마지막 즈음에 도달한 17세 청소년들은 새로운 이성의 깊이를 보여준다. 그래서 단지 객관적 적 합성이나 이해력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개성의 형성과정을 깊게 바라볼 수 있도록 사고영역에까지 고려해야 한다.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의 고양이가 사회성을 강화하게 된다. 그래서 11학년 하반기로 가면서 주변사람들, 부모, 학교의 생활에서 자신을 변화할 수 있고, 개별성에 있어 점점 더 자주적이 된다.

“자연을 찾는 외침이 있는 곳에서, 만물의 신성한 근원을 기억하고 그것과 합일 하고자 하는 갈망이, 젊음으로 가득 찬 영혼으로부터 솟아오른다.”

- 루돌프 슈타이너

11학년 과제

- 느낌의 객관성과 동시에 감성영역에서의 판단의 능력을 키워나가기(자기 취향의 판단력, 스타일, 사회의 법칙성)
- 사고의 유연성을 배우기, 10학년에서의 규칙적이고 엄격한 논리로부터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 연관성의 사고(합성), 사고의 과정을 배우기
- 사고의 영원성, 감각을 넘어선 감성
- 어둠, 고뇌, 포기의 극복을 경험하기

각 에포크의 주요점

문학

11학년은 성장소설 『파르치팔』을 통해 자기 내면을 키우는 여정을 떠난다. 중세 시대의 『파르치팔』 서사시는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책에는 파르치팔의 순진한 어린 시절, 모험, 기사로서의 삶, 세상을 경험하기, 성인이 되는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학생들은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자신들의 질문을 상응시킬 수 있고, 크고 작은 주제로 토론을 이루어내며, 에포크 기간에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체험하도록 한다. 두 번째 문학 에포크에서는 파르치팔 모티브를 중점으로 두고, 다양한 문학작품을 감상하며 내면을 탐구하고 키워나간다.

또한 한국의 고전을 읽으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사람의 모습을 탐구하며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본다.

수학

대수에서는 규칙성과 일반화가 주제이다. 자연의 여러 가지 모습을 관찰하여 수열을 통한 규칙성을 탐구하고, 일반화를 시도한다. 이는 향후 '규칙성'과 함께 '경향성'을 다룰 '함수'로의 진입을 도와줄 것이며 상급 수학의 대미를 장식할 '미분적분'의 안내자이기도 하다. 보다 많은 변수의 도입은 사고를 확장하게 하고 지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기하에서는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를 탐구한다. 그동안 다져온 유클리드 기하의 원리로 시작하여 사영기하, 쌍곡기하, 타원기하를 알아본다. <무한대>의 영역을 사고 영역에서 파악한다. (무한점, 무한선, 무한면)

10학년에서 배운 삼각함수를 더 확장하여 배운다. 삼각법을 공간에 적용한다. 분석기하학을 통해 대수와 기하영역을 통합한다.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지금까지 분리되어서 배웠던 내용을 모두 통합하고 연결시킨다. 10학년에서 도입한 벡터를 11학년 수학에서 정식화한다.

물리

물질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기로 전자기학과 원자물리 등이 주제이다. 10학년의 동역학이 관찰과 감각적 영역에서 인도되었다면, 11학년에서는 전자기학의 영향, 방사능과 원자력 구성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이전 학년에서 실험으로 경험한 물리적 현상을 이론화하는 작업을 하고, 각 논리적 의미에 내포한 모순을 찾아내어 증명하는 과정을 배운다. 보이는 영역에서 출발하여 실재를 상상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다루게 된다. 보이지 않는 세계(원자)에서도 보이는 세계(역학)와 관련현상의 연관성을 찾아나간다.

생물/세포학

11학년 학생들의 판단력은 영혼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의심은 단순한 얕이 더 깊은 수준의 자신만의 인식으로 바뀌는 것을 도와준다. 학생들은 스스로 습득한 자신만의 견해를 찾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기꺼이 의심하고, 논쟁하게 된다.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세계의 과정을 판단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지만, 단순히 이분법적 경향성이라기보다 양극단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자신만의 관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단순한 원인-결과와 관계를 넘어 서로가 원인이 되는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생물학에서는 생명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주제, 생물학 전체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다룰 수 있다. 개개인의 학생들은 이제 자신의 고유한 세계관을 세우는데 몰두한다. 다양한 생명현상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1학년 생물학의 중심 주제는 관찰 가능한 가장 작은 세계, 즉 세포와 미생물이다. 자기 반영적인 다양한 생물들을 가능한 한 많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11학년에는 가장 작은 세계와 가장 넓은 세계라는 양극단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물학에서는 세포라는 미시세계를, 천문학에서는 우주라는 거시세계를 경험함으로써 학생은 스스로 그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게 된다.

화학

주기율표와 원소를 다룬다. 금속의 반응, 금속들 사이의 연관성을 주기율표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주기, 족)을 통해 파악한다. 아울러 금속(이온)이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또한, 물질의 본질과 그것을 이루는 입자의 성분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과학자들의 실험과 그 한계를 통해 원자 모형의 변천사를 다룬다. 12원소(H, C, N, O, P, S, Cl, K, Na, Mg, Ca, Fe)에 대한 특징을 자세히 다루어야 하고, 결론이 출발점에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각 화학 원소마다의 역사적 배경과 실험을 통하여 결론에 도착할 수 있도록 수업이 구성된다.

천문학

9학년의 지질학으로 지구의 표면을 이해하고, 10학년의 기후학을 통해 우리의 대기를 이해를 한다. 11학년은 지구를 둘러싼 하늘로 시선을 돌린다. 천문학은 고대 시대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학문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동시에 이 땅의 이치를 파악하며 세상과 사람이 연결된 종합적인 학문이다. 11학년에서는 천체에 대하여 바라보는 의식이 변화하는 것을 다룬다. 별, 태양의 시간 등을 다룬다. 오늘날의 천문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에 대한 질문들을 다룬다. 또한 동시에 우주의 기원으로부터 발생학을 다루게 된다.

역사

11학년 역사에서는 중세 ~ 근대에 이르는 인류의식의 변화과정을 탐구한다. 특히 인류가 만들어낸 의식의 흐름이 어떠한 여정을 거쳐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축의 시대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사상적 흐름에서 더욱 나아가, 자신의 문화적 뿌리에 대한 인식을 심화한다. 그리고 의식혼의 시대에 나타나는 징후적 사건들을 현상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찾는다. 더 나아가 경제적 활동에 대한 인류사적 흐름을 탐구한다. 세계체제론을 통해 세계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초기 자본주의의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다양한 사료를 통해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명암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음악사

11학년에 다루는 예술사는 음악사로, 고대음악에서부터 20세기 초반의 음악사까지 흐름을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적 음악형태의 발전을 통해 배운다. 그 동안 음악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작곡가들의 전기와 음악 형식들을 바탕으로 아폴론적 고전음악과 디오니소스적 낭만음악, 아폴론적 형태가 강한 작곡가와 디오니소스적 특징이 강한 작곡가의 작품을 살펴며 학생들은 역사적으로 음악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면화 되었나 질문하게 된다. 각 시대별로 결정적인 출발의 순간들 즉, 다양한 음악적 변화들이 새로운 시기의 현상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클래식 음악이 '우주적 언어'로써 민속음악과 재즈와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 19세기 음악가들에 의해 발전한 사회의식의 깨어남을 발견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나아가서 동시대의 음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내면적 질문을 학생 스스로 갖게 하며, 음악이 생명을 가진 인간의 한 부분으로써 삶의 예술임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각 과목의 주요점

오이리트미

'내 안에 있는 세계는 말하고, 노래하고, 생각한다!' 나의 몸이 악기가 되는 오이리트미의 본질적 요소를 실행할 수 있는 객관성을 체험한다. 존재의 뿌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진지하게 찾아가는 11학년의 발달단계에 맞춰, 우주와 세계의 관계를 오이리트미로 표현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 나는 움직임을 형성하는 주체이다.
- 공간 기하 형태를 내부의 동력,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탐구한다.

- 행성의 움직임, 영혼의 동작을 재해석하여 표현한다.
- 음악 오이리트미의 기본 요소인 박자, 리듬, 멜로디(음의 높낮이), 모티브 전환, 각 화음의 차이 등을 오이리트미로 표현한다.
- 이제 학생들은 스스로 언어와 음악 작품을 오이리트미 형태로 공간에 나타낼 수 있다.

음악

낭만 11학년 학생들은 감각적인 경험과 지식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경험한다. 3도 음정 안에 숨어있는 6도 음정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귀 즉, 다른 이들의 내면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 작곡가들이 더욱 풍성한 화성으로 내면을 노래하고, 사회적으로는 의식을 깨우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예술가들의 교류가 있었던 낭만시대를 다룬다. 낭만시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음악의 새로운 요소로 떠오른 '이미지'를 작곡가들이 어떻게 그려냈는지 스메타나, 드뷔시 등의 작품을 통해 느끼고 비화성음들과 반음계적 전조들이 작품 속에서 어떤 질문을 만들어 내는지 알아본다. 가곡을 독창하면서 내면의 노래를 표현해내는 연습을 한다.

- 다양한 낭만시대 작곡가 전기 조사와 발표
(브람스, 슈만, 멘델스존, 쇼팽, 바그너, 베르디 등)
- 낭만 가곡 (Lied) 독창
- 고전시대 형식들의 변형과 새로운 형식들
소나타와 심포니의 확장, 교향시
- 인상주의 작품 소개: 드뷔시 La mer
- 즉흥연주와 작곡 연습
(비화성음의 열린 진행, 해결, 반음계적인 전조, cadenza 만들어 보기, 가곡 쓰기 등)

미술

객관적인 힘과 예술적인 감각으로 자연의 법칙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자연이 주는 감각 인상을 회화적으로 표현한다. 흑백소묘에서는 빛과 어둠의 그림자가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아닌, 인간의 영혼의 상태가 표현되도록 한다. 조소에서 형태의 움직임과 표현력을 길러나가고 유기적인 움직임을 예술적으로 조형해나간다.

- 회화: 나무와 꽃에 대한 연구, 햇빛, 일몰, 달빛, 빛속의 나무, 색채론, 음악적 요소를 색깔과 형태로 변환(기쁨, 슬픔, 아다지오-알레그로 등)
- 흑백소묘, 빗금그리기
- 판화
- 조소: 형태 및 변형으로 유기적인 움직임을 구현, 중세 조각품, 표현주의 조각품 등 관찰

수공업

개인과 전체의 연결을 배우고 깊숙한 내면작업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목공예수업에서는 단체작품으로 학생들이 함께 기획하고 재료구입, 제작, 설치작업을 하며 전체 속에서의 자신을 경험한다. 금속공예수업에서는 열처리, 합금, 단조를 등의 작업으로 금속의 성질이 변화하는 과정을 배우고 대장간에서 빠르고 간결하게 철을 조형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 단체작품대형가구(목공예)
- 편지갈(금속공예)

수공예

세상으로 나아가려하는 시기로 나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찾고 싶어 한다. 정신과 물질의 관계, 원료와 형태의 관계를 책 만들기를 통해 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한지와 양지의 차이점과 발달과정을 공부하며, 문명, 문화가 현실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학생들은 포장지나 책표지를 디자인하고, 경험하게 되며 책을 묶는 과정을 포함하여 책 편집기술도 익히게 된다.

- 책 만들기: 한지와 양지를 이용한 책 만들기
 - 한지의 재료와 양지의 재료. 고유작업의 재료가 되는 것을 배우게 된다.
 - 책을 쓰고 인쇄하여 책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명확, 정확한 작업이 필요함을 스스로 느끼며, 신중하며, 섬세하게 작업한다.

체육

11학년 이시기에는 학생들 스스로 좀 더 나은 목표와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즉 판단과 선택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시기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좌우 대칭을 연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던지기나 배팅을 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표현해줄 수 있는 것이 창던지기이다. 또한 라켓스포츠 마찬가지로이다. 그래서 이시기에는 의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연습을 해야 한다. 기술의 정확성, 전술에 대한 이해 뿐 만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필수적인 기술을 대부분 이해한다. 이 시기는 게임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체조: 전 학년의 연속해서 동작의 흐름과 올바른 운동 안에서 리듬 찾기를 강조하고 움직임은 점점 통합적으로 가게 된다.
- 운동: 운동이 연속성과 사회성이 점점 강조가 된다. 구기스포츠와 라켓스포츠, 투포환, 원반던지기, 투창던지기 활쏘기
- 보트머: 창던지기 운동, 대칭보행, 높은 독수리 동작

정보학

9 ~ 10학년에서의 기본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프로그래밍)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본 과정이 'data의 생성/가공/연산/연결'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한다. SW의 개요와 자료구조, 정보 윤리 등을 이해하며,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알고리즘과 문제 해결 능력을 익힌다.

- 자료와 정보 및 정보 윤리
- 알고리즘 및 SCRATCH
- 문제해결 방법론 및 Application 프로그래밍

사회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경제적 이슈들과 현상들을 탐구한다. 11학년 시기는 세상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비판의식 또한 구체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다. 수업 시간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토론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판단력을 확장한다. 특히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비문학 독해를 통해 현 사회에 대한 제반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헌법 강독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이해하고, 정치철학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강독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열린 시야를 갖고, 사유의 폭을 넓히 고자 한다.

영어

첫 번째 두 7주기를 지나면서 배웠던 도덕성과 성인이 발달시켜야 하는 윤리성 사이에 있는 상태이며, 이것을 느끼고 있다. 내면의 자아에 대한 경험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 집중성, 깊이, 특별성, 그리고 스스로의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책임감까지 얻게 된다.

풍부한 언어는 풍부한 사고의 선재조건이다. 자신의 모국어에 덧붙여 두 가지 언어를 더 배운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관계성에서 성장하는 젊은이들을 강화시켜준다. 젊은이들은 다른 감정과 감수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실용적으로도 다른 언어 안에서 세상에 반응하는 다른 방식에 마주하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은 간접 경험의 깊이에 도달하도록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고 17세의 청소년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문학적 인물 안에서 스스로를 인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어휘를 확장하고 정교화 하는 것에 덧붙여 11학년 언어 수업의 중심 주제이다.

영어 수업의 목표

- 극(Dramas)은 읽기 텍스트보다는 오케스트라 악보이다.

텍스트와 관련된 표현력 있는 제스처, 안무, 무대세팅, 의상, 조명, 분장들은 극에 생명을 불어일으키고, 이것은 학생들에게 명확해야 한다.

가능한 수업의 내용

- 극(Drama)
 - William Shakespeare
 - A. Ayckbourn, A. Bennett, A. Miller, C.S.Lewis, D. Hare, E. Albee, G.B. Shaw, J.R.R.Tolkien, H. Pinter, P. Shaffer, T. Stoppard, T. Wilder, T. Williams, T.S Eliot
 - Brave New World 1984, Animal Farm, and more recent books
- 낭송
 - William Shakespeare - 초기현대영어
 - Canterbury Tales - 중세영어
 - Beowulf - 고대영어
 - Robert Frost, Carl Sandburg, William Stafford, Alice Walker
- 현대영어
 - 역사적 사실의 짧은 요약

중국어

11학년에서는 변화, 죽음, 부활과 같은 주제가 많이 다루어지는 전기 작품을 통해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의 일생이나 역사 인물의 일대기를 통해 내 삶을 바라 보게 된다. 문예부흥과 계몽시대의 운동에서 배웠던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공부하게 되고 중국의 어느 한 시대의 배경과 인물들의 관찰을 통해 역사적인 사건과 인류 존재의 원인을 반추하게 된다. 11학년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강해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려 하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교실안의 배움에 있어서도 배워야 하는 이유와 의지를 추구하는 강한 요구가 생겨나는 시기임으로 교사가 바르게 서서 대화를 이끌어 내야하고 친구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업 안에서의 호흡이 수업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 발표와 토론의 형식을 빌어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의견을 외국어로 말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다. 또한 현대시, 당시, 희곡이나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 혹은 훌륭한 삶을 살아온 인물의 전기를 소재로 중국인의 사상, 사유체계, 문화와 시대성을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작품 내용을 요약하고 독후감 쓰기 연습을 통해 작문 실력을 향상시킨다. 문학작품의 독해와 연극을 통해 인생을 간접 경험할 수 있고 시의 낭송 등을 통해 언어가 주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고시(古詩): 贺知章<咏柳>, 王安石<梅花>, 杜甫<春夜喜雨>, 颜真卿<劝学>, 苏轼 <水调歌头>, 李清照<一剪梅> 등
- 회화&어휘: 일상 및 상황별 회화, 관용어, 고사성어, 헐후어 등
- 독해&독후감: 주자청의 산문<春>, <背影>, 중국의 현대 작가 파금의 <家>을 읽고 중국 20년대 초 개화기 봉건시대의 사상과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배경으로 그 시대의 젊은이들의 삶과 처세술을 이해하고 감상

12학년 발단단계:

나의 노래, 세상의 노래

시무룩한 얼굴로 어깨를 움츠리고 다니던 11학년 때와 달리 12학년에 올라가면서 많은 아이가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온 듯 대범하고 여유로워진다. 이들은 지금 커다란 문지방을 넘는 중이다. 아직 한 발은 학교에 담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등지를 넘어 자라고 있고, 다른 한 발은 이미 기대와 흥분으로 학수고대하는 세상 속에 있다. 생각이 깊어지는 만큼 시야도 넓어지고 있다.

12학년이 매일같이 고민하는 문제의 대표적인 것은 갈수록 뚜렷해지는 자신의 개별성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싶은 욕구와 그러면서도 공동체를 떠나고 싶지는 않은 마음 사이의 팽팽한 긴장을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12학년들은 ‘되어가는’ 존재라는 말의 의미를 절감한다. 지금까지 겪은 사춘기를 객관적으로 반추할 힘이 생기면서, 그 짧은 몇 해 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성숙해졌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 없이 눈치 보며 남을 흉내 내던 시기도 있었다. 어딘가 소속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토래 집단에 합류했다. 다른 아이들이 입는 옷을 입고, 10대들의 은어, 말투를 따라하고, 집단이 승인한 대상에게 반항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한 지금은 자신만의 고유성을 더 귀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반에서 별로 인기가 없던 괴짜나 유별난 취향을 가진 아이들이 이제는 독특한, 하지만 진짜 자신의 색깔을 가진 인간으로 대우받는다. 이런 아이들에게 독창성을 추구하라는 권고가 귀에 쏙 들어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사춘기 후반 청소년들에게 어른은 더 이상 권위를 가진 존재로서 복종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을 온전한 어른으로 여기며 부모와 교사로서의 역할을 내려놓는 것 역시 옳지 못하다. 이들의 힘을 인정해주는 동시에 도움을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10대 후반 아이들과의 관계가 억지로 밀어 올리거나 위에서 끌어당기는 식이어서는 올바르게 형성될 수 없으며, 아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인생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전능한 스승도 독재자도 아닌, 조금씩 뒤로 물러나다가 마침내 전권을 양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인지하고 있는 안내자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은 일찍부터 배운다. 고통은 자아의 변형과 성장을 위해 마련한 장치이며, 개인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그

것을 넘어설 수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자비와 연민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변화는 인간에게 주어진 크나큰 선물인 동시에 인간이기에 치러야 하는 크나큰 대가다. 한 12학년 학생의 말을 빌리자면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장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며, 나쁜 소식은 우리가 그 성장의 기회를 자주 불신하고, 때로는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인간의 조건을 그린 모든 이야기를 통해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와 변형의 힘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12학년 과제

- 관찰, 사실정황을 근거로 한 질적인 면의 이해를 배우기
- 내적인 관계성을 이해하고 세상의 정신적 힘을 실제적으로 바라보기, 비가시적인 정신성과 보이는 세계의 형태, 소재의 결합을 경험하기
- 한 과정을 순방향으로 그리고 역방향으로 구체화하기
- 인과/분석과정을 관찰하기, 법칙, 필연성, 자유, 책임성을 통합하여 배우기 (부분과 전체)
- 자신의 삶/ 운명과 대면하기 : 인류에 대한 질문과 맞서기
- 사고의 전환 배우기, 세계시민으로 체험하기, 질문하기를 배우기: 인생 전체에 흐르는 과제

각 에포크 주요점

문학

12학년은 자아의식의 근원을 탐색하며 인간식발달과정의 상징으로서 인간의 저작 활동을 조망한다. 한 인간으로서의 '나'를 탐색하고 '나'를 객관화하여 노래하는 시를 창작한다. 현대 인간상의 모습을 대표하는 문학작품을 선택하여 분석하고 문학작품을 통해 현대 인간의 질문을 재조명한다. 또한 현대가 요구하는 철학적 사유를 통해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를 탐구한다.

『파우스트』를 읽으며 본질적인 '인간으로서의 책임'에 관해 토론하고 인간의 성장과 방향에 대하여 고민한다. 인간 됨이란 무엇인지, 그 안에 내포된 이중성 또는 모순을 살펴본다. 또한, 중세부터 현대까지의 문법 규칙을 망라하고 다양한 한국 문학작품을 탐구하며 국어의 소양을 키운다.

수학

12학년의 수학은 지금까지 익혀온 모든 영역의 집대성이다. 대수에서 기하로, 기하에서 대수로 연결하는 고리를 분석적으로 찾아낼 것이다. 미분과 적분은 그 결과물로서 실생활요소 찾아보는 활동, 작도를 통한 미분/적분의 이해와 더불어 순수하게 숫자들의 관계적 경험으로도 다루어진다. 또한 무한대 및 무한소의 개념을 계산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해하고 극한의 방법론을 세운다.

자연 및 사회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도구로써 확률과 통계가 상급 수학의 마지막 에포크에서 다루어진다.

물리

11학년의 현상학적 과정에 이어 12학년에서 광학이 중심주제이다. 보는 관찰에서 사고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빛의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괴테의 <색채론>이 소개된다.

동시에 예술수업에서는 괴테의 색채론을 직접 그리면서 체험하도록 한다. 나아가 양자이론의 소우주와 상대성이론의 대우주의 양극을 다루며 이 대립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찾아낸다. 이론으로서 먼저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의 전기와 그 시대 양상, 기술의 발달에 따른 과학의 변화, 나아가 사회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개별 학생의 독자적 작업이 시행된다.

생물/동물학

12학년은 포괄적으로 통찰할 수 있으며, 더 높은 수준에서 생물학의 다양한 테마를 인식하고,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게 된다. 이것은 자기 인식에 기반한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준다. 발달과정에 따라 12학년 생물학 에포크는 동물계와 고인류학이 중심이 된다. 전체 동물계와 인류의 진화를 조망하는 것은 생명의 동기로써 진화의 동기를 발견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한다. 자연계의 거대한 다양성을 마주하고, 개인과 세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12학년 생물학 에포크에는 종에 대한 지식을 근본적으로 확장시키고, 예시를 통해 개별적 종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특히 포유동물의 특징들이 자유로운 인간을 향하는 진화적 경향성임을 깨닫게 된다.

화학

지금까지의 화학을 총망라하여 네 가지 존재 영역(광물, 식물, 동물, 인간)의 화학을 다룬다. 유기와 무기의 차이를 인간의 내부 유기체의 화학 반응과 외부 세계의 화학 반응의 비교를 통해 다루며 기준이 되는 원소와 그 이유를 살핀다. 유기화학

의 한 분야로 탄소화합물을 다루며 특히 다양한 탄화수소의 분류를 통해 구조화, 일반화 하고 분자의 입체 구조와 안정성을 예측한다.

광물(10학년-염의 결정 구조), 식물(9학년-광합성), 동물(9학년-호흡, 소화), 인간(12학년-세포 구성 물질의 구조와 기능)의 측면에서 화학 전반을 다룬다.

11학년 때 다루었던, 물질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Bohr 원자 모델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De Broglie, Heisenberg, Schroedinger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원자 구조 및 전자에 대한 현대적인 관점을 제안한다.

환경학

학생들은 자신을 찾기 위한 분명한 발걸음을 내딛고 자신의 내적 사고력, 느낌, 의지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다. 그들은 생태계와 같은 복잡한 현상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고방식인 원인과 결과의 그물에서 미묘한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연과 문화적 구조의 관점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의 과제에 더 가깝게 초점을 맞추고 더 큰 책임감으로 세상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환경과 인류의 삶, 환경 문제와 대책, 자원과 에너지, 기후 변화의 이해와 대응, 녹색 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 개인과 지역 사회에서의 실천, 국가적·국제적 노력을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지구 사이의 새로운 파트너 십이 필요하고 모든 개인이 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역사

12학년 역사에서는 인류사 전체를 조망하면서, 자신만의 역사의식을 갖고자 한다. 12학년이 되면, 9, 10, 11학년에서 쌓은 능력에 더하여 더욱 세분화시키는 능력이 생긴다. 이를 통해 모든 에포크마다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된다. 이러한 능력을 갖고, 또 이런 능력이 요구되기에 역사적으로 인류 초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를 한 흐름으로 살펴보는 게 가능하다. 긴 시간적 연대를 한눈에 조망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변화했는지 알아내고, 둘째로 다시 반복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셋째로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본질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의 과제는 긴 시간대를 조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력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긴 연대에서 필수적인 동력들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이는 도덕적인 시각을 형성하여 미래를 향하여 자신의 도덕적 견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12학년이 되면 아주 개별적이고 개성적인 자신만의 판단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철학

상급학년 전체적으로 과목과 학년 구분 없이 철학적인 질문이 많이 등장한다. 12학년의 철학수업은 여러 과목의 연장선에서 인간의 의식과 삶에 대한 이해를 주요 과제로 삼는다. 특히 건조하고 일반적인 철학적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철학의 근본적 질문에 대해 안내를 받고, 학생들이 스스로 제기하는 철학적 질문을 전체 인류의 질문과 대응하며 자신만의 시각을 찾아나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12학년 철학시간을 <지혜와의 우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건축사

예술사로서 12학년에서는 건축이 주제이다. 건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우선 학생들은 자신의 몸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를 토대로 건축 전반에 대한 정역학적-구조적인 법칙을 찾아나가 건축의 원칙을 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편적인 예술로서 건축을 바라보고 다른 영역의 예술이 어떻게 건축과 연관되는지 찾아볼 수 있다. 총체적인 예술로서의 건축이 도출되며, 미학과 연관할 수 있다. 건축의 세 측면을 수업에서 다룰 수 있다.: 예술적인 형태, 기술적 측면, 사회적 기능. 건축사에서 대표적인 건축물을 찾아 다양한 모티브로 관찰한다. 예를 들어 내부공간의 발전, 공간과 건축형태, 공간의 질적 측면, 건물의 내용, 기능을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공간 특징 등. 현대까지 이루어지는 건축의 발전사는 인류 문화, 의식의 발전과 상응하여 탐구할 수 있다. 예술의 본질과 의미 또한 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건축사 에포크에 이어지는 12학년의 예술여행은 소비지향적인 여행이 아니라, 학생들의 능동적인 관찰, 건축물 그리기, 석공예 또는 작은 건축프로젝트와 결합할 수 있다.

각 과목의 주요점

오이리트미

발도르프 교육의 왕관을 쓰게 될 12학년은 마지막 학년으로서 졸업 공연을 준비한다. 각 학생은 그동안 배우고 익힌 오이리트미의 예술적 내용과 기술을 토대로 언어작품과 음악작품을 스스로 고르고 예술적 표현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고 있는 12학년들에게 세계 형태의 근본이 되는 12궁도의 의미와 그에 맞는 오이리트미 동작을 제시하여 인간 본질의 원형적 동작과 삶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이리트미를 동작 표현 예술로서 이해하고, 전체 인류사를 통해 펼쳐졌던 동작 예

술 양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대 예술로서의 오이리트미에 대한 의식을 개별 작업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 오이리트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통찰한다.
- 그룹 형태, 조명 연출, 의상, 예술작품 총체를 독자적으로 구성해본다.

음악

현대 12학년 학생들은 음악을 커다란 연결고리로 바라보며 전체를 파노라마로 형성한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바라보며 현대 예술에 대해서도 알고자 한다. 시대적으로 새로운 것, 알려지지 않은 것, 음악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듣고자 한다. 그래서 12학년 음악 수업에서는 무조음악을 다룰 수 있다. 현대의 음악가들에 대해 조사해 볼 수 있고, 전자 음악이 의미, 음악의 발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음악사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갖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에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모든 음악을 현재로써, 우리의 현재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음악으로써 받아들이고 학생 스스로가 음악적 사람이 되도록 한다.

-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음악 훑어보기, 과거와 20세기 음악 비교하기
- 무조음악의 접근: 쇤베르크 12음계
- 20세기 작곡가들과 작품 조사하고 묘사하기, 특징, 비교, 분류하기
스트라빈스키, 힌데미트, 쇤베르크, 베르크 등
- 음악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토론
- 인간과 음악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 졸업 연주 (솔로, 챔버 앙상블 등 다양한 형태로)

미술

인간을 겉모습이 아닌 내적인 원리로 이해하는 인간학이 바탕이 되도록 한다. 인간이 주제이며 인간에 대한 상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의 얼굴을 그려본다. 색 화음, 색 구성, 색과 형태에 대한 인상, 개별적인 색 울림을 특색 있게 표현하는 연습 등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상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간다. 조소에서는 사람의 두상 또는 자유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며 조형 형태에 개성이 형성되게 한다.

- 회화: 인간 두상(남성, 여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 측면 얼굴 및 자세 관찰, 인상주의, 표현주의를 자유롭게 재현
- 소묘
- 판화
- 조소
- 예술 프로젝트

수공업

형태의 본질과 미학적 접근을 다루게 된다. 석공예 수업에서는 추상적인 형태를 작업을 하며, 나의 의식이 온몸 구석까지 닿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온전히 느끼게 된다.

- 조형물(석공예)

수공예

내적인 관계성을 이해하고 세상의 정신적 힘을 실질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자신의 개성을 살려, 스스로가 디자인하여 아름답고, 실용적인 의상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민족의 문화를 담은 의상을 만들 수도 있으며, 작품을 분석하여 성격, 영혼과 정신성을 담은 연극의상 만들기를 시도한다.

- 의상 만들기
 - 재료의 다양성을 경험하고, 정확한 치수재기, 패턴, 재단하기를 한다.
 - 재단하고 디자인한 의상을, 체형과 체격을 고려하여 수정, 완성 할 수 있다.

체육

이 시기는 공간적인 자유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느끼기, 생각하기, 의지하기의 간섭이 일어난다. 학생들은 이제 공간 인지의 모든 범위의 가능성을 경험하고 형성할 수 있고 나무를 목재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자지고 있어야 한다.

- 운동과 체조: 지금까지 소개된 운동은 고난이도 기술까지 연습하고 다양한 운동을 연습하는 것에 특히 흥미를 가지고 이것이 발달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
- 보트머: 인간의 형태는 교차 운동법에서 3부분의 공간 구조 경험

정보학

조금 더 난이도 있는 프로그래밍 수업을 통해, 다양한 결과물을 도출한다. 문제점을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방법을 설계한 후, 이를 직접 구현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technology 활용을 경험한다. 동시에, 다음의 두 가지에 대한 고찰을 제안한다. 하나. 프로그래밍을 통한 컴퓨터의 논리를 파악함과 동시에, 자신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구조화 하고자 하는 의지. 둘. 기술발달의 역효과에 대해 독자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식과 사고

- 피지컬 컴퓨팅 (micro:BIT)
- AI, PYTHON
- 상시 토론 수업(컴퓨터의 사고, 인공 지능을 바라보는 관점, 로봇과 이식기술이 가진 도덕적/윤리적 질문들)

사회

11학년에 이어서 정치 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문화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운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탐구하고, 특히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 뿐 아니라 행동경제학 등 다양한 경제학의 주제 등을 살펴본다. 더 나아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제반 사회문제 등을 살펴보고, 현 사회에 대한 감각을 키운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철학 등 다양한 분과의 학문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인지 구조적으로 탐구한다. 그리고 사회 삼원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판단력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탐구를 진행한다.

영어

잘 선택된 현대 영문학 작품들은 젊은이들에게 매우 다양한 현대적 문학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인상을 주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현재 사용되는 작품들은 *The Great Gatsby*, *Death of a Salesman*, *Native Son*, *Tortilla Curtain*, *Educating Rita*, *My beautiful Laundrette*, *A long Way Down among others*, *Les Miserables* 등입니다.)

문학작품 작업이 언어 수업의 중심이 된다. 수업에서 모든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책과 자신의 언어 능력에 맞는 책에 대해 발표한다.(독후감). 신념을 가지고 예술적인 방법으로 연극장면, 텍스트 문단, 혹은 시를 발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문화적 사건이나 현재의 문제에 대한 정기적으로 토론을 지속하고 종종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

영어 수업의 목표

12학년 말 학생들의 권장 언어능력

- 청취력: 친근한 주제, 현재 이슈, 그날의 중요한 사건이나 행사와 관련한 구어영어를 유창하게 이해
- 독해력: 단어의 의미, 문체, 복합적인 정보기사과 수필뿐만 아니라 문학적 텍스트에서 세심한 차이를 이해함; 길고 정보성의 기사를 폭넓게 읽을 때 요점을 찾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구어언어: 청취력에서 언급한 어려운 텍스트도 이해를 하면서 읽을 수 있고, 도움 없이 텍스트에 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언급을 할 수 있어야 함. 적절한 속어와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쓰기: 개인의 관심사에 대한 넓은 스펙트럼의 주제에 대해 명확하고 세부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함. 친근한 읽기 주제에 대하여 요약하여 쓰고, 질문에 대답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코멘트를 쓸 수 있어야 함.

중국어

12학년에서는 사고 영역 속에만 갇혀 있는 생각들을 완전히 꺼내어 나만의 언어로 말할 수 있고 실제적인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본질을 깨닫고 정신적인 위대한 힘을 가지는 초월세계를 인식하게 된다. 또한 신화와 동화에서 배웠던 세계에서 걸어 나와 사회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는 단계이다. 12학년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 디딤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수업을 계획하고 12년간의 내 안에서의 삶과 학교생활을 조망하는 힘을 가지고 통합하는 단계이다. 12년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단계로써 12학년의 수업 방향은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간접적인 사회를 접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 높은 수준의 어휘를 구사할 수 있도록 고사 성어, 성어 배경고사, 관용어 등을 학습한다. 또한 인물 평전이나 연극 작품을 강독하고 무대로 올려 스스로 발표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

학습목표는 언어영역의 4요소인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루 배양시키며 원인을 분석하고 인과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시(古詩): 《絶句》,《江雪》, 《梅花》,《劝学》,《题临安邸》,《望庐山瀑布》 등
- 회화&어휘: 일상 및 상황별 회화, 관용어, 고사성어, 헐후어 등
- 독해: 노신의 산문집《鲁迅散文集》, 아큐정전 <阿Q正转> , 공을기<孔乙己>
- 독후감&발표

연극

12학년 연극은 그야말로 12년 과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발도르프 학교에서의 모든 과정을 협동 작업을 통하여 총체적이고 예술적으로 마무리한다. 12학년은 비교적 규모가 큰 희곡을 배우게 된다. 8학년 때의 놀이 욕구에서 벗어나, 연극이라는 과목에 대하여 더 깊이 있고 전문적으로 배우게 된다.

연극사를 배우며 시대별 연극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배운다. 연극사 수업을 할 때에 발표식의 수업을 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조사해오고 그 시대의 특징 희곡을 골라와 나눔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부족한 부분은 교사가 보충 설명으로 채워준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가 왜 연극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번 연극의 목표와 방향성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다양하고 완전한 희곡을 접하며 아이들이 자신들이 올리고 싶은 희곡을 스스로 정한다. 무엇보다 사회에 나가서 마주칠 수 있는 문제들, 혼돈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들을 다루는 희곡, 그리고 반 분위기와 특성에 잘 어울리는 희곡을 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적극적으로 어느 희곡을 추천하고 골라주는 것보다 뒤에서 방향성을 알려주고 유도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

12학년 연극은 극작, 의상, 무대, 홍보, 기획 등 연극이 가진 다양한 분야를 통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진로를 탐색해보는 기회도 얻게 된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자신에 대해, 학급 친구들에 대해 새롭게 객관적으로 다시 알게 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를 통하여 또 한 번 문턱을 넘게 된다.

연극사 강의나 연기적인 전문 티칭 외에 교사는 공연 희곡 고르기부터 각색, 캐스팅과 제작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 방향 제시만 해주는 것이 좋다. 8학년 때에는 교사들이 캐스팅을 진행했다면, 12학년은 자신들 스스로 하고 싶은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서로를 추천해주며 자발적인 캐스팅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 좋다.

상급학년 실습

9학년 농업실습

상급과정동안 학생들이 실제 현장을 경험하여 세상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쌓는 일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실습과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고 삶과의 연결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갈 수 있다. 9학년 학생들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삶의 과정에 질문을 던진다. 인간과 땅의 관계는 어떠한가, 식물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 동물들과는 어떤가, 기계의 발전을 통해 어떤 문제점들이 증폭되고 있는가, 그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가? 삶을 향한 모든 질문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그 질문을 세우는 의식이 깨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욕구를 자신의 건강한 몸으로 풀어보고자 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실험하고 과제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욕구를 자연에서 풀 수 있도록 안내한다.

중점

학생들은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한다. 농산물과 토지를 가꾸는 일을 통해 땅을 이해한다. 농업실습기간 동안 혼자 또는 그룹으로 농장에서 일하며, 농업 전체과정을 배우고, 생산과 경제획득의 가장 원천적인 형태를 경험한다. 거기에 더하여 유통체계, 식품산업, 경제의 <지속성>에 대한 질문을 발전시킨다.

활동

학생들은 가능한 한 농업의 모든 활동-씨 뿌리기, 심기, 김매기, 거름주기, 거두기와 보관까지 배운다. 더 나아가 초보단계의 가축돌보기 뿐만 아니라 전체 농장을 하나의 유기체로서 경험하고 농장의 사회적인 조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농기구, 기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경험에 포함된다. 가능하다면 생명역동농법 농장, 유기농이 이루고 있는 농장을 실습지로서 선택하도록 하나,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농장일 수도 있다.

- 농장의 전체 환경
- 농장의 지리적 환경
- 농장의 경제구조
- 농장의 하루일과 (매일 일지로 정리한다. 이 작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활동을 의식적으로 내화시키기 위한 필수 작업으로 요구된다.)

10학년 측량실습

측량실습은 <기계학과 삶의 실제> 공부와 연관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울 수 있다.

- 수학이 단지 수학적인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정확히 계산하고 그 계산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수학의 영역은 대수로서 사인과 코사인의 법칙의 활용.
- 수학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학생들이 경우, 측량실습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안정감과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10학년의 학생들은 단지 이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구체적인 경험을 원한다. 자신들의 지적인 능력을 정확히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신체적 의지를 단련하고, 객관적으로 획득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
- 정확한 측량도 읽기를 배운다.
- 학생 스스로 오류를 통해 자신의 정확성, 인내, 비판적인 자기평가를 할 수 있다.

중점

- 측량의 작업은 그룹으로 이루어진다.
- 활동을 구조화하여 실행한다.
- 측량의 과정은 시간, 공간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 각 학생은 전체 작업 활동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한다.
- 측량도의 표시를 파악함은 학생들의 꼼꼼함과 정확성을 요구한다.
- 학생들의 사고, 추상적 능력이 더 깊어진다.
- 측량도의 기호 이해와 측량의 실제 작업을 연관하여 정리한다.
- 작업의 오류를 통해 스스로 작업을 재편하도록 한다.

활동

- 측량이 가능한 들판을 실습장소로 정한다. 장소에 따라 어떤 형태를 형성할 것인지 정한다. (삼각형 형태, 다각형 형태, 측량선)
- 학생들이 배운 삼각함수를 실제 영역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가능하다면 측량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실습기간 동안 제도법, 투사법, 지리와 천문학을 함께 나눈다.

11학년 생태실습

11학년의 학생들은 자신의 경계를 실험하고 극한까지 가고자 한다. 극한을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배우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러한 <극한의 가치>를 생물학에서도 다룬다.

세포 생물학, 유전학, 발생학이 주제이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한다. 관찰 가능한 살아있는 모든 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역사적 배경과 생물학자들에 대한 토론도 함께 이루어진다. 또한 매크로 세계에서 마이크로 세계로 전환을 시도한다. 세포유기체에서 지구 전반의 환경으로 시각을 옮겨 사실상 생물 전체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이러한 생물학적 접근의 실제로써 실습지 주변 환경에 따른 가능한 모든 동·식물군의 분류와 탐구를 위한 실습을 진행한다.

중점

학생들은 실습지 주변에서 서식하는 동·식물군을 탐구하는데 중점을 둔다. 식물들의 서식 조건과 환경을 통해 실습지 주변의 생태계를 이해한다. 생태실습 기간 동안 조별로 활동하며 가능한 모든 생명체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실습지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동·식물군을 채집하여 보관하고 이를 소재로 생물학 수업에 연계한다.

활동

학생들은 관찰가능한 모든 생명체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더 나아가 실습지 환경을 대표하는 동·식물군의 채집과 표본을 만든다. 또한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군을 표기한 생태지도도 작성한다. 바다 주변과 바다 속 해양생물들을 채집과 낚시를 통해 관찰할 수 있다. 다양한 생명체가 함께 공존하는 지구생태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생태계와 환경을 고려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토론한다.

가능하면 다양한 자연 환경(산, 바다, 습지 등)이 확보된 공간을 실습지로 정해 여러 동·식물군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실습지 서식 동·식물군을 통한 생태·지리적 환경
- 현미경을 통한 가능한 모든 생명체의 관찰과 기록
- 지구생태계 다큐멘터리 시청 및 우리의 태도에 대한 토론
- 실습지 생태도감 및 생태지도(매일 일지로 정리한다. 이 작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활동을 의식적으로 내화시키기 위한 필수 작업으로 요구된다.)

12학년 사회실습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통합하고 연결하는 능력을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펼치 고자 하는 18세의 내적 요구에 따라 학교에서는 최소한의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현장, 특히 사회 공동체의 가장 주변에 있다고 말해지는 현장이나 자신이 이후에 접할 수 없는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얻기를 원한다. 그들은 사회실습 과정에서 실제 현장에서의 책임의식, 직무에 적합한 능력의 가능성, 상황에 적절한 행동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 산업현장에서는 활동 능력이 요구되고, 주관적인 관심 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 환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감각을 열어 인지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12학년의 사회실습은 청소년들이 이 모든 가능성을 실제로 경험하고 자신을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식을 깨워준다. 한 인간으로서 사회의 성원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하고, 동시에 자기 삶의 개별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보게 하고 타인의 성장과 발전을 알게 된다. 실습 후에는 서로 경험을 교환 하고 부모, 교사 그 외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실습 보고를 한다.

중점

- 실습지의 사회적 그룹에 대한 경험, 자신의 인지 과정을 정리한다.
- 실습지의 일과를 함께 경험한다.
-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경험을 정리하고 내면화한다.
-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배운다.
- 원칙을 지키며 동시에 상황에 대한 유연성을 연습한다.
- 직업적인 어려움을 기존의 활동가를 통해 알게 된다.
- 사회적 책임, 사회적 통합에 대한 모델을 체험한다.
- 사회학에서 배운 정신에서의 자유, 법에서의 평등, 경제에서의 형제애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경험한다.

활동

- 현장의 일과 체험 또는 함께 구성하기
- 자신이 맡은 활동을 책임진다.
- 기관의 역사를 파악한다.
- 기관의 형성과 사회구조 내에서의 위치를 파악한다.
- 실습일지, 보고서 작성

2024학년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생활 규정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상급 생활 규정

전면개정 2024. 3. 7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생활 규정(이하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항(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출석

제5조(상급 출석과 시간 엄수)

- ① 결석(병결)해야 할 경우, 부모가 지도교사에게 예포크 시작 30분 전(7시 30분) 까지 알리고 7일 이내에 진단서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 ② 일과(수업 시간) 중 진료를 위한 조퇴 시, 지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③ 지각, 결석, 조퇴, 결과는 학생생활기록부에 사유와 함께 기재된다.
- ④ 지각, 결석, 조퇴, 결과에 따른 과목(에포크) 수업 출석일 수(수업일 수*2/3) 미달 시, 해당 과목(에포크)의 새로운 과제(징계, 훈육)를 부여받는다.
- ⑤ 각 수업 시간의 1/3 이상 지각 시 결과로 처리된다.
- ⑥ 2회 결과 또는 3회 지각은 1일 결석으로 인정된다.

제6조(출결의 종류) 출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인정 결석
 - 1. 질병(근거 서류 필요): 3일 이상 질병 결석 시 치료 날짜가 명기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2. 가족 사망(근거 서류 필요)
 - 3. 법정 출석(근거 서류 필요)
 - 4. 가족 체험학습(연 최대 5일)
- ② 인정 조퇴 및 외출
 - 1. 지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에게 조퇴(외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2. 다음 등교 시 보호자가 확인(서명)한 조퇴확인서를 지도교사에게 제출한다.
- ③ 인정 결과
 - 1. 수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건실에 입실한 경우
 - 2. 사전 보호자 또는 지도교사(교과담당교사)에게 허락을 받은 경우
- ④ 지각
 - 1. 수업 시간 정시 후 입실하는 경우는 모두 지각에 해당한다. 다만, 지각 사유가 합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⑤ 미인정 결석, 조퇴, 외출, 결과
 - 1. 원인을 증명할 수 없는(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타 사유에 의한 행위
 - 2. 보호자 및 교사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행위
- ⑥ 미인정 결석 60일 이상 시 퇴학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3 장 학업

제7조 과목(에포크) 수업

① 수업

1. 지각, 결과, 결석, 조퇴에 따른 출석일 수(수업일 수*2/3) 미달 시, 해당 과목(에포크) 교사에게 새로운 과제를 받아 수행한다.
2. 지각, 결과, 결석, 조퇴에 따른 출석일 수 미달로 인해 부여된 과제는 일주일 이내에 수행하여야 하며 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과목(에포크)은 '미이수'로 처리된다.
3. 각 수업 시간의 1/3 이상 지각 시 결과로 처리된다.
4. 2회 결과 또는 3회 지각은 1일 결석으로 처리된다.
5. 지각, 결과, 결석, 조퇴로 인한 학습 결손은 스스로 보충해야 한다.

② 과제

1.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지정하는 과제(수업 주제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등)

③ 에포크(과목) 공책 정리 및 과제 제출

1. 에포크 공책은 에포크 마치는 날의 다음 주 월요일 08 : 00까지 제출한다.
2. 에포크 노트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노트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에포크는 '미이수'로 처리된다.
3. 과목 과제는 과목 교사가 지정한 날까지 제출한다.
4. 해당 교사가 에포크(과목) 과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시 재량으로 추가 과제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과목(에포크) '미이수'

1. 지각, 결과, 결석, 조퇴에 따른 출석일 수(수업일 수*2/3) 미달로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해당 과목(에포크)은 '미이수'로 처리된다.
2. 에포크 노트 및 과목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과목(에포크)은 '미이수'로 처리된다.

⑤ 과목(에포크) '미이수'의 경우

1. '미이수'의 경우 학생발달기록 비교란에 '미이수' 사유 및 담당 교사의 소견을 기록한다.
2. 학생생활기록부에 학년별 교육과정 내 과목의 '이수', '미이수' 여부를 기록한다.
3. '상급생활지도위원회'와 연계하여 미이수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 4 장 상급생활지도위원회(생활지도위원회)

제8조(상급생활지도위원회 구성)

-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급생활지도위원회(이하 '생활지도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지도위원회는 교사회에서 추천된 3인으로 구성한다.
- ③ 생활지도위원회는 교사 1인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한다.
- ④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지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로부터 사안에 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교사회는 본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학생지도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상급생활지도위원회는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지도위원회(교사회+법률자문위원 1인)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10조(의결 정족수) 학생지도위원회(교사회+법률자문위원 1인)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교사 의장단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5 장 학생생활

제11조(대인 관계)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켜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원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르며,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④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며,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실과 체육실, 로비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도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 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폭력예방 및 대책)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상급생활지도위원회(생지위)’ 및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15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학급의 시설 및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쾌적한 수업 및 학급 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 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③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간을 준수한다.

- ④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⑤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⑥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⑦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수업 중 교사의 허락 없이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휴대폰 등 불필요한 전자기기를 꺼내놓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 ⑩ 수업 또는 활동에 맞는 복장을 갖춘다.

제16조(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⑤ 점심시간에는 교실에서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와 식사 예절을 잘 지킨다.
- ⑥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중정과 체조실 등 허용된 장소에서만 한다.
- ⑦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⑧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7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교와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회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성냥,ライター, 폭죽, 드라이기 등의 인화 물질 및 전열기
-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 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 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⑧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또는 오토바이

제18조(정보통신 윤리) 상급 미디어 사용 수칙을 따른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③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9조(휴대폰 사용)

- ① 휴대폰은 교사회의 허가를 받은 후 소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은 휴대폰 사용 수칙에 따라 상급생활지도위원회의 요구에 응한다.
- ③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사회의 허락하에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며 기기를 아끼고 철저히 관리한다.

제20조(자치활동)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생회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제21조(기타)

- ① 교내, 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 ⑤ 학생은 등교 시 안전을 고려하여 차량 또는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등교할 수 없다.

- ⑥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지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결과, 외출 및 조퇴를 할 수 없다.

제 6 장 학생생활교육

제22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제23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② 교육환경 조성
- ③ 시정 요구
- ④ 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⑤ 상급생활지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⑥ 교사회 분쟁조정 및 구제 신청
- ⑦ 교사는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⑧ (보건 및 안전) 교사회는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⑨ (인성 및 대인 관계) 교사회는 인성 및 대인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⑩ (그 밖의 분야) 교사회는 제5조부터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생 개별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제24조(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훈계, 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절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5. 훼손 시설·물품·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7. 기타 상급생활지도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 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급생활지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조언) 교사회는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1.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교사회는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⑤ (상담) 교사회,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1.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사회 판단에 따른 긴급사안에 의한 상담, 교원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2.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교사회,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상담 진행과 절차는 교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4. 교사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헐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

- 회는 동료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주의) 교사회는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1. 교사회는 수업 중 휴대전화가 울리거나 그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교사회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4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5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3. 교사회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교직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⑦ (훈육) 교사회는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1. 교사회는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교사회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3. 교사회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회는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훈계) 교사회는 조언, 상담, 주의 그리고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1. 학생을 훈계할 때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2. 교직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 훈계 사유와 관련된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 ⑨ (출석 정지) 학교 폭력 사안 중 관련 학생이 분리되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물리적인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제14조에 따라서 피신고인에게 무기정학 조치를 하여 분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 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 ③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 ④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⑤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남학생은 남교사가 여학생은 여교사가 실시한다.
- ⑥ 사안 발생 시 교사회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교사회 보고로 처리한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7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제17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제17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26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학교 공동체,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교사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교사회는 징계를 할 때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공휴일은 제외)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교내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출석정지(정학)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무기정학: 기한을 정하지 않은 출석 정지. 문제가 해결되거나 학생이 개선될 때까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28조(징계의 방법) 교사회는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교내봉사 :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 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 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한다.
- ②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문상담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③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 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의 별도 공간에서 상담 등의 별도 일정을 가질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④ 무기정학: 징계가 끝날 때까지 학교 출입을 금한다. 정학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사유를 기재한다.
- ⑤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교사회는 퇴학처분을 할 때는 퇴학 전 일정기간(7일 내외)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한다.

제29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상급생활지도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0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교사회는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위원회에서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교사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교사회는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교사회는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교사회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31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① 교사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일 이내에 '상급생활지도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상급생활지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③ 상급생활지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는 청구사항을 학교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 교사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32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교사회는 징계 완료 전이라도 행동변화(반성)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②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33조(사후 조치)

- ① 지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 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에 재입학이나 편입학할 수 없다.

제34조(징계의 기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별표 1)로 정한다.

제 7 장 학생회

제35조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학생자치 규정 및 학생회 임원선거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규정의 제·개정

제3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교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팀 1인이 맡는다.
-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는 규정안 심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7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제·개정을 발의 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의장단(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교사회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38조(검토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 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검토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9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제.개정안을 확정하여 교사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교사회의 심의 및 결정 절차는 교사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회의를 통해 학부모에게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별표 1)

학생생활교육 기준표

구분	항	행 위 내 용	교 육 내 용					
			주의	학교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무기 정학	퇴학 처분
예 절	1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	*	*			
	2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3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
	4	타 학생에게 언어 또는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 학생			*	*	*	*
준 법	5	수업활동 중 휴대폰 (미디어기기 포함) 사용·소지하여 적발된 학생			미디어 사용 수칙에 따른다.			
	6	공중문서를 위변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7	학교 단체 활동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학생	*	*				
	8	사이버 공간에서 해킹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9	선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10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1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기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12	음란물 등을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13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수 업	14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15	수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학생		*	*	*	*	*
근 태	16	미인정 결석,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를 한 학생 (미인정 횟수를 합산하여 처리함)	3	5	10	15	20	30
			연속횟수					
	17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6	10	20	30	50	63
			연간 누적 횟수					
18	미인정(무단) 결석 기간이 동 학년에서 60일을 초과하거나 학습의욕이 현저히 부족하여 교육 목적상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학교위원회가 판단한 경우(단, 9학년일 경우에는 전학 권고)						*	
약 물	19	흡연을 한 학생(담배, 라이터, 성냥을 소지한 학생은 흡연한 것으로 인정)	1	2	3	4	5	
			연간 누적 횟수					
	20	음주(교내외에서 부모, 지인 동반 음주 포함)를 한 학생	*	*	*	*	*	*
21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퇴 폐 행 위	22	도박을 한 학생(사이버상의 도박 포함)	*	*				
	23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24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25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26	타 학생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가한 학생			*	*	*	*
집 단 행 위	27	불법 집회 또는 불량 씨름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28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	*	*
	29	학생을 선동하여 교내 및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기 타	30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선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	*	*	*	*
	31	선도 기준 이외의 것은 전체 교사회 회의를 거쳐 특별교육 또는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다.			*	*	*	*